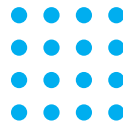




조사 보고서



2024년 고양시 단시간 노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October 2024

조사 보고서



2024년 고양시 단시간 노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October 2024



목 차

01 서론

1. 조사 배경	11
2. 조사 목적·내용	13
1) 조사 목적	13
2) 조사 내용	13
3. 조사 방법	14

02 설문조사 결과

1. 단시간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17
1) 설문조사 참여자 개관	17
2) 단시간 노동자 실태	18
(1) 근속	18
(2) 근로계약	19
(3) 근무시간	22
(4) 휴게 실태	24
(5) 임금 및 주휴수당, 퇴직금	26
(6) 인격적 대우	34
(7) 임금 지급	35
(8) 기타 및 사회보험	37
(9)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3.3 노동자' 여부)	39
3) 근무 만족도와 복수 일자리 여부	41

2. 프랜차이즈 사업주 실태조사	45
1) 조사 참여 점포 개관	45
2) 가맹점 운영 실태	46
(1) 점포 근무 형태 및 직원 현황	46
(2) 월 휴일 및 영업시간	47
(3) 매출 현황	48
(4) 점포 운영의 어려움과 로열티	51
(5) 가맹점 분사 및 경기도에 대한 요청 사항	54

03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61
2. 정책 제언	63

표 차례

〈표 1-1〉 프랜차이즈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2022년)	14
〈표 2-1〉 조사 참여자 세부 현황	17
〈표 2-2〉 세부 변수별 근속 평균	18
〈표 2-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19
〈표 2-4〉 세부 변수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실태	20
〈표 2-5〉 편의점 브랜드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실태	21
〈표 2-6〉 세부 변수별 근무일 및 근로시간	23
〈표 2-7〉 휴게 시간 실태	24
〈표 2-8〉 세부 변수별 휴게 시간 실태	25
〈표 2-9〉 세부 변수별 주간 시급 액수	27
〈표 2-10〉 세부 변수별 야간 시급 액수	28
〈표 2-11〉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및 교부 방식	28
〈표 2-12〉 세부 변수별 임금명세서 수령 여부	29
〈표 2-13〉 편의점 브랜드별 임금 명세서 교부 실태	30
〈표 2-14〉 세부 변수별 주휴수당 수령 여부(주 15시간 이상자)	31
〈표 2-15〉 편의점 브랜드별 주휴수당 수령 여부(주 15시간 이상자)	32
〈표 2-16〉 퇴직금 수령 여부	32
〈표 2-17〉 세부 변수별 퇴직금 실태(근속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33
〈표 2-18〉 폭언·폭력 실태	34
〈표 2-19〉 세부 변수별 손님에 의한 폭언·폭력 실태 현황	34
〈표 2-20〉 성희롱 실태	35
〈표 2-21〉 임금 지급 실태	35

〈표 2-22〉 세부 변수별 마감 후 차액 처리	36
〈표 2-23〉 세부 변수별 추가 노동 경험 유무	37
〈표 2-24〉 세부 변수별 사회보험 가입 실태	38
〈표 2-25〉 세부 변수별 3.3 노동자 여부	40
〈표 2-26〉 편의점 브랜드별 3.3 노동자 여부	41
〈표 2-27〉 임금, 노동 조건 만족도	41
〈표 2-28〉 세부 변수별 임금, 노동 조건 만족도(5점 척도)	42
〈표 2-29〉 세부 변수별 투잡 실태	43
〈표 2-30〉 조사 참여 점포 현황	45
〈표 2-31〉 세부 변수별 단시간 노동자 수	47
〈표 2-32〉 세부 변수별 매출 증감 현황	49
〈표 2-33〉 매출 감소 대응	50
〈표 2-34〉 점포 운영상의 어려움	51
〈표 2-35〉 세부 변수별 로열티 지급 여부	52
〈표 2-36〉 세부 변수별 로열티 수준 인식(5점 척도)	53
〈표 2-37〉 가맹본부에 대한 요청 사항	54
〈표 2-38〉 경기도에 대한 요청 사항	55

그림 차례

[그림 1-1] 단시간 노동자 규모 추이	11
[그림 2-1] 주당 근로시간 및 근무일 수	22
[그림 2-2] 주간 시급 액수 분포	26
[그림 2-3] 야간 시급 액수 분포	27
[그림 2-4] 주휴수당 수령 실태	30
[그림 2-5] 사회보험 가입 실태	38
[그림 2-6] 3.3 노동자 여부	39
[그림 2-7] 투잡 하는 이유	44
[그림 2-8] 점포 운영 형태	46
[그림 2-9] 월 휴무일 및 1일 영업시간 현황	47
[그림 2-10] 업태별 1일 영업시간	48
[그림 2-11] 1년 전 대비 매출 현황	48
[그림 2-12] 지급 로열티 수수료율 분포(N=28)	52
[그림 2-13] 지급 수수료액 분포(N=4)	52
[그림 2-14] 로열티 수준을 바라보는 인식	53





01



서론

1. 조사 배경
2. 조사 목적·내용
3. 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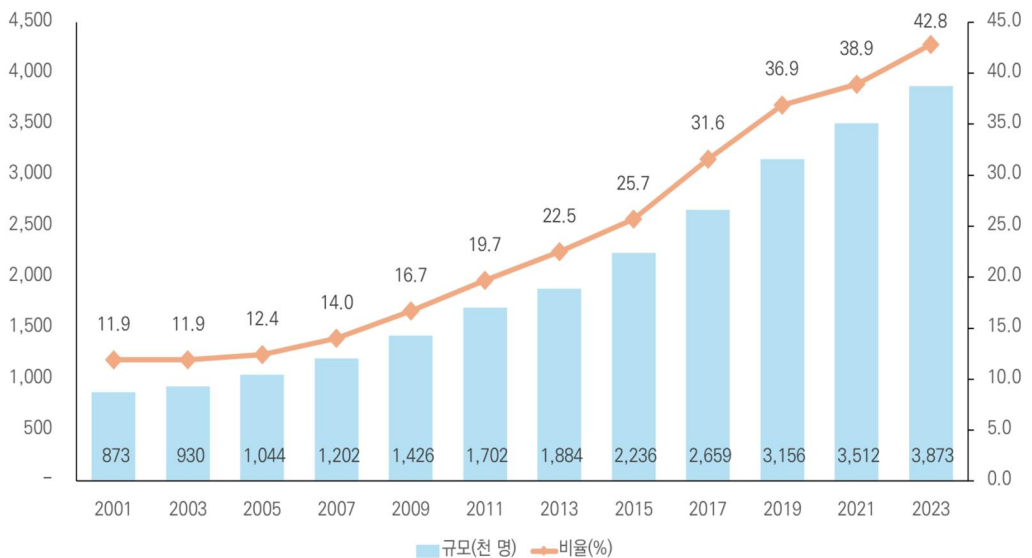
01 서론

1. 조사 배경

-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가 한국 노동 사회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한국 사회 비정규 노동 실태와 정책 방안은 주로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그리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에 집중되어왔다.
- 반면,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 실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고용 형태로서,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되어 있는 한국의 노동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비정규 고용 형태였다.

[그림 1-1] 단시간 노동자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비율은 전체 비정규 노동자 대비 비율치임.

- 전체 임금노동자 중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작은 편이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 87만 2천 명 수준이었던 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2023년 8월 기준으로 387만 3천여 명으로 증가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42.8%는 단시간 노동자이다.
-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단시간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단시간 노동에는 여성, 청소년 및 준고령 노동자 등 대체로 노동시장 내 취약 계층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 ‘부업’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노동시장 내 취약 집단별 직종·업종이 분리·분절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청소년이 단시간으로 취업하는 프랜차이즈 서비스 업종·직종들은 노동 조건도 열악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라는 점에서 사업주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기본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2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 2010년대부터 지역의 비정규 센터를 중심으로 단시간 노동자, 특히 급증한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고 치우 개선 방안 마련에 노력해 왔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015년부터 진행한 ‘힘내라 알바’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2020년부터 경기도 기초지자체와 함께 ‘노동권익서포터즈’라는 단시간 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 이 보고서는 2024년 경기도와 고양특례시·고양시노동권익센터가 함께 진행한 ‘고양특례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 중 설문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1) 조돈문 외 (2016),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국가인권위원회.

2. 조사 목적·내용

1) 조사 목적

- 고양특례시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 실태 파악
 - 임금, 근로조건 등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 실태 파악과 이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단시간 노동자 상당수는 청소년, 여성, 준고령 등 노동시장 내 취약 계층이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 프랜차이즈 점주 실태조사
 - 200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자영-고용주의 지위에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에서는 종속성을 지닌 소규모 사업주이기도 하다.
 - 점주 실태 조사를 통해 점포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고충을 파악한다.
- 실태조사를 통해 고양시 프랜차이즈 점포 운영 및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 실태 파악과 아울러 치우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조사 내용

- 단시간 노동자 조사에서 파악할 주요 내용은 단시간 노동 관련한 법·제도 준수 실태 파악이다.
 - 기초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여부, 임금 명세서 교부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과 더불어 기타 부당 처우 경험 유무 등
 - 임금 실태와 복리후생 적용 실태 : 시급을 중심으로 한 임금 실태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 작업장 내 산업안전 : 성희롱 및 폭언·폭력 실태 등
- 프랜차이즈 점주 조사에서 파악할 주요 조사 내용은 점포 운영 실태, 가맹점 본사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주요 요청 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 조사 대상은 프랜차이즈 업태 중 편의점·커피점·패스트푸드점·피자점·제과점 등을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태들이다.
 - 경기도는 전국 프랜차이즈 사업체와 종사자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프랜차이즈 업종이 집중된 광역지자체이기도 하다.

〈표 1-4〉 프랜차이즈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2022년)

(단위: 개, 명, %)

프랜차이즈 업태	전국		경기도		비율	
	사업체 수 (A)	종사자 수 (B)	사업체 수 (C)	종사자 수 (D)	C/A	D/B
체인화 편의점	53,827	200,882	14,790	58,987	27.5%	29.4%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2,138	5,048	630	1,444	29.5%	28.6%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4,591	13,933	1,171	3,642	25.5%	26.1%
안경 및 렌즈 소매업	3,911	9,390	1,026	2,477	26.2%	26.4%
한식 음식점업	45,465	144,155	12,377	39,092	27.2%	27.1%
체인화 편의점	53,827	200,882	14,790	58,987	27.5%	29.4%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2,138	5,048	630	1,444	29.5%	28.6%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4,591	13,933	1,171	3,642	25.5%	26.1%
안경 및 렌즈 소매업	3,911	9,390	1,026	2,477	26.2%	26.4%
한식 음식점업	45,465	144,155	12,377	39,092	27.2%	27.1%
외국식 음식점업	14,273	55,616	4,147	16,071	29.1%	28.9%
제과점업	9,020	37,316	2,417	10,327	26.8%	27.7%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7,295	61,829	4,441	16,214	25.7%	26.2%
치킨전문점	29,348	64,195	7,112	16,115	24.2%	25.1%
김밥, 기타 간이음식점 및 포장 판매점	19,900	55,662	5,368	15,445	27.0%	27.7%
생맥주 및 기타 주점업	10,719	29,889	2,502	7,475	23.3%	25.0%
커피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29,581	116,831	7,373	29,616	24.9%	25.3%
자동차 전문 수리업	5,558	27,072	1,502	7,735	27.0%	28.6%
두발 미용업	4,596	21,389	1,461	6,519	31.8%	30.5%
가정용 세탁업	4,757	6,343	1,430	1,932	30.1%	30.5%
기타 프랜차이즈	31,335	93,155	8,706	27,326	27.8%	29.3%
합계	286,314	942,705	76,453	260,417	26.7%	27.6%

* 통계청, 「프랜차이즈 조사」(2022년)

- 또한, 프랜차이즈 업종은 단시간 노동자, 특히 취약계층인 청소년 노동자가 집중 취업하는 대표 서비스 업종이기도 하다.

3. 조사 방법

□ 조사 방법은 단시간 노동자와 점주(가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는 고양특례시 관내 프랜차이즈 점포를 대상으로 고양특례시 노동권익서포터즈가 방문하여 1:1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02



설문조사 결과

1. 단시간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2. 프랜차이즈 사업주 실태조사

02 설문조사 결과

1. 단시간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참여자 개관

- 조사는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825명의 단시간 노동자가 참여하였다.
 - 전년도 조사(801명)보다 24명이 증가했다.

〈표 2-1〉 조사 참여자 세부 현황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성	207	25.1	가맹 형태	가맹점	760	92.0
	여성	618	74.9		직영점	23	2.8
평균 나이 [31.4세]	20세 미만	55	6.7		잘 모름	43	5.2
	25세 미만	329	39.8	근로 시간 구분	15시간 미만	541	65.9
	30세 미만	162	19.6		36시간 미만	208	25.3
	30대	79	9.6		36시간 이상	72	8.8
	40대 이상	201	24.3	평균 근속 [12개월]	3개월 이하	207	25.1
업태	편의점	549	66.4		6개월 이하	166	20.1
	커피점	142	17.2		1년 이하	215	26.0
	햄버거점	48	5.8		2년 이하	148	17.9
	피자점	6	0.7		2년 초과	90	10.9
	제과점	47	5.7		전체		827
	기타	35	4.2				

- 성별로는 여성이 74.9%로 지난 조사보다 여성 비율이 높았다. 나이로는 20세 이상 25세 미만이 3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5세 미만 전체로 보면 46.5%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 전년도 조사에서 24세 미만이 36.1%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25세 미만 비율이 약 10.4%p가 높아졌다. 반면, 30세 미만과 30대의 비율은 감소하기도 했다.
- 업태로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66.4%였으며, 커피점이 17.2%였으며, 햄버거점, 피자점, 제과점, 기타 등이 16.4% 정도이며, 편의점과 커피점이 83.6%였다.

- 가맹 형태로는 92.0%가 가맹점에서 소속되어 있었으며, 직영점은 2.8%로 매우 적었다.
- 근로 시간으로 봤을 때,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65.9%였으며,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가 25.3%, 3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는 8.8% 정도였다.
- 근속으로는 6개월 초과 1년 이하가 26.0%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하 전체로 보면 71.1%로 대부분이 1년 이하이며, 평균 근속도 12.0개월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평균 근속 개월이 1.5개월 정도 길어져서 이제는 평균 1년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

2) 단시간 노동자 실태

(1) 근속

- 조사 참여자 근속 평균 근속 개월은 12.0개월이었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근속 개월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업태로는 제과점이 19.2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피자점과 커피점이 각각 10.7개월, 10.8개월로 낮았다.
- 근속 개월 분포 중에는 2개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최소값은 0개월 (17명)이며, 최대값은 142개월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평균 근속(개월)은 남성보다 여성이 길었으며, 근로시간이 길수록 긴 모습을 보였다.

〈표 2-2〉 세부 변수별 근속 평균

(단위: 개월)

구분		근속 평균(개월)	구분		근속 평균(개월)
성별	남성	11.4	업태	편의점	11.6
	여성	12.2		커피점	10.8
연령	20세 미만	5.6		햄버거점	13.9
	25세 미만	9.6		피자점	10.7
	30세 미만	9.5		제과점	19.2
	30대	12.8		기타	10.5
	40대 이상	19.4		가맹 형태	가맹점
근로 시간	15시간 미만	9.9	직영점		10.1
	36시간 미만	14.3	잘 모름		11.9
	36시간 이상	20.9	전체		12.0

(2)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는 94.7%가 작성했으며, 91.7%가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도 조사는 각 95.3%, 97.5%였던 것과 비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에서 모두 비율이 하락하였다. 특히,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전년도 대비 약 3배 올랐다.

〈표 2-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단위: 명, %)

구분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수령		
	작성	미작성	잘 모름	교부	미교부	잘 모름
인원	773	24	19	745	35	32
비율	94.7	2.9	2.3	91.7	4.3	3.9

- 세부 변수별로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비슷하나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참여자가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 나이대별로는 25세 미만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3.7%, 5.6%로 높았으며, 근로계약서 미교부 비율도 5.3%, 9.4%로 다른 나이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업태로는 커피점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96.4%로 높은 편에 속했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 비율이 5.1%로 기타업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근속으로는 3개월 이하와 2년 초과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비율이 6.4%, 6.8%로 높았다.
 -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15시간 미만에서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과 근로계약서 교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6시간 미만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2-4〉 세부 변수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실태

(단위: %)

구분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수령		
		작성	미작성	잘 모름	교부	미교부	잘 모름
성별	남성	94.1	2.9	2.9	91.7	3.9	4.4
	여성	94.9	3.0	2.1	91.7	4.5	3.8
연령	20세 미만	92.6	5.6	1.9	84.9	9.4	5.7
	25세 미만	93.2	3.7	3.1	88.5	5.3	6.2
	30세 미만	96.2	1.3	2.5	94.3	2.5	3.2
	30대	94.9	1.3	3.8	92.3	3.8	3.8
	40대 이상	96.5	3.0	0.5	96.5	3.0	0.5
업태	편의점	94.3	3.1	2.6	92.7	3.9	3.5
	커피점	96.4	1.4	2.2	89.1	5.1	5.8
	햄버거점	93.6	4.3	2.1	93.0	4.7	2.3
	피자점	100.0	-	-	100.0	-	-
	제과점	95.6	2.2	2.2	91.1	4.4	4.4
	기타	94.3	5.7	-	85.7	8.6	5.7
가맹 형태	가맹점	94.4	3.2	2.4	92.1	4.7	3.2
	직영점	100.0	-	-	100.0	-	-
	잘 모름	97.7	-	2.3	83.7	-	16.3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95.9	2.1	2.1	92.8	3.2	4.0
	36시간 미만	92.8	3.9	3.4	89.3	5.8	4.9
	36시간 이상	93.0	5.6	1.4	91.4	7.1	1.4
근속	3개월 이하	91.1	4.4	4.4	87.6	6.4	5.9
	6개월 이하	92.1	4.9	3.0	90.7	5.6	3.7
	1년 이하	98.6	-	1.4	95.3	1.4	3.3
	2년 이하	97.3	1.4	1.4	94.5	2.7	2.7
	2년 초과	94.4	5.6	-	89.8	6.8	3.4
전체		94.7	2.9	2.3	91.7	4.3	3.9

- 가장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편의점을 주요 브랜드별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실태를 보면, 세븐일레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비율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낮았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응답한 비율도 세븐일레븐이 높았고, 이마트24도 세븐일레븐과 같이 '미작성', '미교부' 비율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2-5〉 편의점 브랜드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실태

(단위: %)

구분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수령		
	작성	미작성	잘 모름	교부	미교부	잘 모름
CU	92.9	4.3	2.9	90.0	4.8	5.2
GS25	97.7	0.5	1.8	97.7	0.5	1.8
세븐일레븐	90.3	5.4	4.3	87.1	8.6	4.3
이마트24	92.0	8.0	-	92.0	8.0	-
전체	94.3	3.1	2.6	92.7	3.9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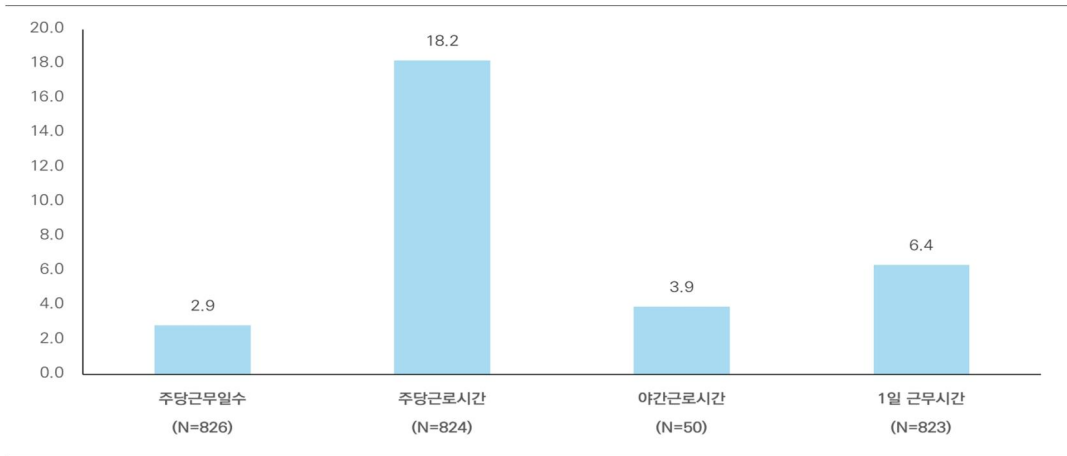
(3) 근무시간

□ 조사 참여자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보면, 주당 평균 2.9일을 일하면서 주당근로시간은 평균 18.2시간이다. 야간 근무를 하는 인원은 50명이었는데, 주당 평균 3.9시간을 야간에 일하고 있었고, 조사 참여자 전체 1일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이었다.

-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평균 근무일은 동일하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도 18.1시간과 거의 같다. 야간 근무는 전년도 8.6시간에서 3.9시간으로 약 4.7시간이 줄어들었으며, 1일 평균 근로 시간은 전년도 6.3시간과 거의 같았다.

[그림 2-12] 주당 근로 시간 및 근무일 수

(단위: 일, 시간)



□ 세부 변수별로 보면, 여성이 주당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이 남성에 비해 짧은 편이다. 나이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근무일 수,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 업태에 따라서는 편의점, 커피점, 제과점이 주당 근무일 수와 주당근로시간이 약 17.5~18.0시간 정도로 햄버거점이나 피자점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6시간 내외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다(피자점 제외).
-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 특성은 주당 평균 2일 정도를 일하면서 하루 약 6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속에 따라서는 근속이 길어질수록 근무일 수, 주당근로시간, 1일 평균 근무시간 모두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결과와 함께 보면, 편의점, 커피점의 특성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제과점의 주당 근로 시간이 20.5시간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편의점과 커피점과 유사한 특성으로 근무일, 근로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통해 단시간 노동자 형태가 초단시간 형태로 한 업태에서 여러 명이 2~3일을 일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초단시간 노동자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경향성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실제 조사 응답자의 근무일, 근로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6〉 세부 변수별 근무일 및 근로시간

(단위: 일, 시간)

구분		주당 근무일 수	주당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
성별	남성	2.8	19.2	4.4	6.8
	여성	2.9	17.9	3.7	6.2
연령	20세 미만	2.4	14.1	1.4	6.1
	25세 미만	2.6	16.2	3.8	6.2
	30세 미만	2.8	18.4	5.8	6.4
	30대	3.3	21.2	1.7	6.3
	40대 이상	3.2	21.3	6.3	6.7
업태	편의점	2.7	17.5	5.3	6.5
	커피점	3.0	17.9	2.1	5.9
	햄버거점	4.0	25.2	4.5	6.4
	피자점	4.2	35.8	-	8.8
	제과점	3.1	17.9	1.0	5.8
	기타	3.2	18.1	1.7	5.6
가맹 형태	가맹점	2.8	17.8	3.4	6.4
	직영점	4.4	27.1	4.5	6.2
	잘 모름	3.3	20.5	6.7	6.2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2.1	12.3	2.1	6.0
	36시간 미만	4.0	24.4	6.4	6.3
	36시간 이상	5.1	44.8	3.0	8.7
근속	3개월 이하	2.7	16.4	2.2	6.1
	6개월 이하	2.7	16.0	3.4	6.1
	1년 이하	2.8	17.9	5.6	6.5
	2년 이하	3.0	20.2	2.7	6.6
	2년 초과	3.4	23.9	5.8	6.8
전체		2.9	18.2	3.9	6.4

(4) 휴게 실태

□ 근로계약서상 휴게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이는 77.2%, 실제로 휴게 시간에 쉴 수 있다는 응답자는 80.9%, 휴게 시간에 일한 경우 임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응답자는 68.7%로 전년 대비 변화가 나타났다.

- 근로계약서상 휴게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 74.7%에 비해 비율이 약 1.5%p 정도 높아졌다. 실제 휴게 시간에 쉴 수 있다는 응답자도 지난해 63.0%보다 17.9%p가 높아져서 휴게 시간에 대한 보장이 높아졌다. 다만, 휴게 시간에 일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가 지난해 86.3%가 지급했다고 한 것에 비해 올해에는 68.7%로 지난해 보다 약 19.6%p가 줄어들었다.

(표 2-7) 휴게 시간 실태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근로계약서상 휴게 시간 유무	있음	638	77.2
	없음	155	18.7
	무응답	34	4.1
실 휴게 시간 사용	쉴 수 있음	669	80.9
	쉬기 어려움	108	13.1
	무응답	50	6.0
휴게 시간에 일한 경우 임금 지급 여부	지급	568	68.7
	미지급	56	6.8
	무응답	203	24.5

□ 세부 변수별로 휴게 시간 실태를 보면, 남성이 휴게 시간이 근로계약서상 보장되어 있거나 실제로 쉴 수 있거나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 나이에 따라서는 20세 미만의 휴게 시간이 가장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고, 휴게 시간에 일하더라도 임금이 미지급되는 경우가 12.7% 수준이었다.
- 업태에 따라서는 커피점과 제과점의 휴게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동시에 휴게 시간에 일하더라도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 가맹 형태에 따라서는 가맹점보다는 직영점이 근로계약서상이나 실제 쉴 수 있는지에서 쉴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명시적으로 실제 쉴 수 없다는 응답이 17.4%로 가맹점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휴게 시간에 일할 경우 임금 지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영점이 8.7%로 가맹점 5.4%보다 높게 나타났다.

-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근로계약서상 휴게 시간이나 실제 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장이 잘 되고 있는 듯 하나,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휴게 시간에 일할 때 임금 지급이 줄어들었다.
-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휴게 시간에 대한 보장은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처럼 보이나 커피점과 제과점은 오히려 근로계약서상 휴게 시간이 있다는 응답과 실제 휴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줄어들었다.

〈표 2-8〉 세부 변수별 휴게 시간 실태

(단위: 명, %)

구분		근로계약서상 휴게 시간 여부			실 휴게 시간 사용			휴게 시간에 일할 경우 임금 지급 여부		
		있음	없음	무응답	가능	어려움	무응답	지급	미지급	무응답
성별	남성	79.7	15.0	5.3	82.1	13.0	4.8	73.9	5.3	20.8
	여성	76.2	20.1	3.7	80.4	13.1	6.5	66.8	7.3	25.9
연령	20세 미만	67.3	29.1	3.6	76.4	7.3	16.4	54.5	12.7	32.7
	25세 미만	75.7	18.5	5.8	81.8	11.2	7.0	66.9	7.9	25.2
	30세 미만	80.2	17.3	2.5	80.9	16.7	2.5	81.5	6.2	12.3
	30대	78.5	19.0	2.5	79.7	13.9	6.3	58.2	8.9	32.9
	40대 이상	79.1	17.4	3.5	81.1	14.4	4.5	69.7	3.0	27.4
업태	편의점	79.8	16.9	3.3	84.3	13.1	2.6	71.6	5.5	23.0
	커피점	73.2	23.9	2.8	73.2	13.4	13.4	62.7	9.2	28.2
	햄버거점	81.3	8.3	10.4	81.3	4.2	14.6	72.9	8.3	18.8
	피자점	100.0	-	-	100.0	-	-	66.7	-	33.3
	제과점	61.7	25.5	12.8	61.7	21.3	17.0	55.3	8.5	36.2
	기타	62.9	34.3	2.9	80.0	14.3	5.7	60.0	14.3	25.7
가맹 형태	가맹점	78.2	17.5	4.3	82.0	11.8	6.2	69.7	5.4	24.9
	직영점	82.6	17.4	-	82.6	17.4	-	78.3	8.7	13.0
	잘 모름	55.8	41.9	2.3	60.5	32.6	7.0	44.2	30.2	25.6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77.6	18.5	3.9	78.4	15.0	6.7	74.1	5.4	20.5
	36시간 미만	73.1	22.1	4.8	86.1	9.6	4.3	60.1	9.6	30.3
	36시간 이상	84.7	11.1	4.2	87.5	6.9	5.6	51.4	9.7	38.9
근속	3개월 이하	72.9	21.7	5.3	80.7	11.1	8.2	63.3	6.8	30.0
	6개월 이하	75.9	19.9	4.2	78.9	13.9	7.2	74.7	4.8	20.5
	1년 이하	79.5	18.1	2.3	80.0	15.3	4.7	75.3	7.0	17.7
	2년 이하	80.4	16.2	3.4	80.4	14.2	5.4	66.2	7.4	26.4
	2년 초과	77.8	15.6	6.7	87.8	8.9	3.3	58.9	8.9	32.2
전체		77.2	18.7	4.1	80.9	13.1	6.0	68.7	6.8	24.5

(5) 임금 및 주휴수당, 퇴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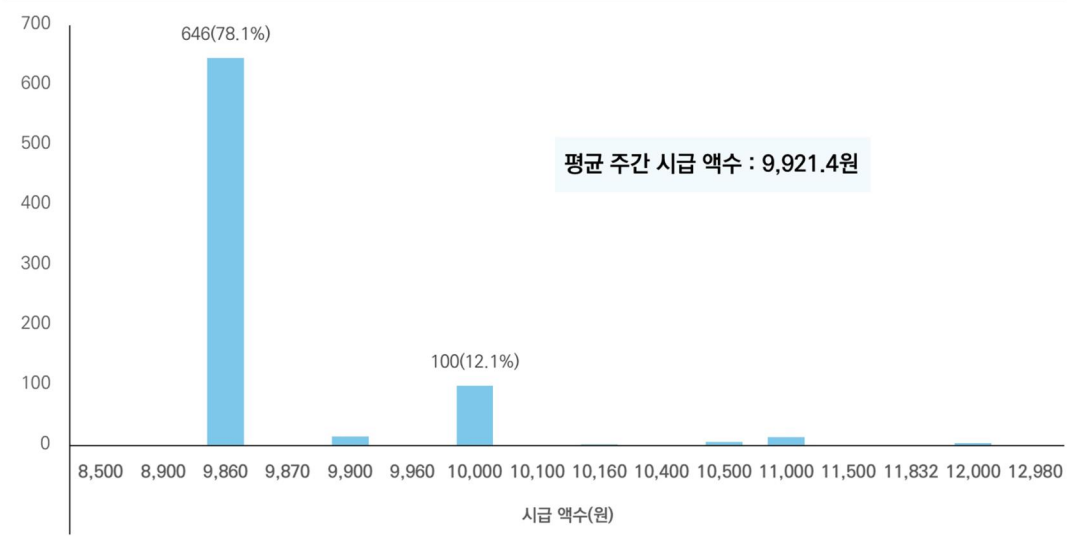
① 시급 액수

□ 주간 시급 액수를 기준으로 보면, 2024년 최저임금 시급액인 9,860원이 78.1%로 가장 많았고, 주간 시급 액수 평균은 9,921.4원이었고, 중위 값은 9,860원이었다.

- 주간 시급 액수 최하는 8,500원이었고, 최고는 12,980원이었다.
- 주간 시급액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는 2명이었고, 전체 인원 대비 0.2% 수준이었다.

[그림 2-2] 주간 시급 액수 분포

(단위: 명, %)



□ 세부 변수별 주간 시급 액수가 높은 집단은 여성, 피자점, 가맹점 등이었다.

- 연령대에 따라서는 30대가 9,885.2원으로 가장 낮았고, 25세 초과 30세 미만이 9,940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 업태별로는 편의점이 9,881.1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피자점이 10,180원으로 가장 높았다. 업태별로는 편의점과 커피점이 평균 주간 시급 액수가 10,000원이 넘지 않았으며, 그 외 업태에서는 10,000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 시간별로는 15시간 미만이 2024년 최저임금 시급액인 9,860원에 가장 가까웠고,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은 10,005.7원이었다. 근속에 따라서는 길수록 조금씩 높은 모습을 보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표 2-9〉 세부 변수별 주간 시급 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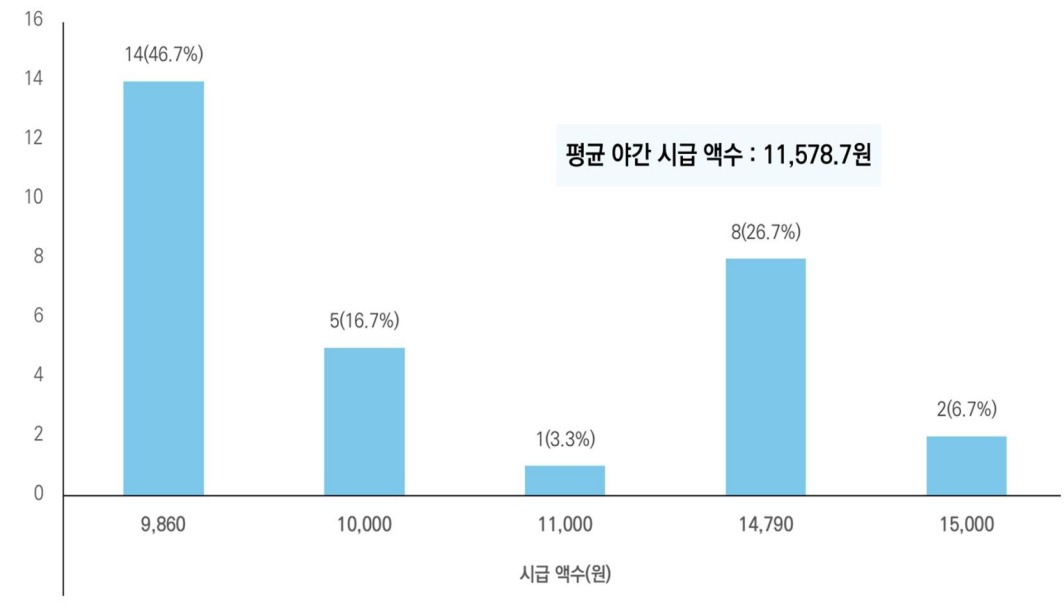
(단위: 원)

구분		시급 액수(원)	구분		시급 액수(원)
성별	남성	9,911.1	가맹 형태	가맹점	9,918.6
	여성	9,924.9		직영점	9,879.1
연령	20세 미만	9,893.5		근로 시간 구분	잘 모름
	25세 미만	9,925.5	15시간 미만		9,889.2
	30세 미만	9,940.2	36시간 미만		10,005.7
	30대	9,885.2	36시간 이상	9,926.7	
	40대 이상	9,921.5	근속	3개월 이하	9,926.0
업태	편의점	9,881.1		6개월 이하	9,898.8
	커피점	9,956.2		1년 이하	9,921.2
	햄버거점	10,047.8		2년 이하	9,925.0
	피자점	10,108.0		2년 초과	9,949.6
	제과점	10,020.5		전체	
	기타	10,101.2			

□ 야간 시급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30명이었으며, 평균 11,578.7원이었고, 최저 9,860원에서 최대 15,000원까지 있었고, 야간 시급 기준 최저임금 미만자는 없었다.

[그림 2-3] 야간 시급 액수 분포

(단위: 명, %)



□ 세부 변수별로는 직영점에서 높았으며, 업태별로는 편의점은 9,951.8원이었고, 커피점과 햄버거점은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액보다 약 3~5천 원 정도 높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표 2-10〉 세부 변수별 야간 시급 액수 (단위: 원)

구분		시급 액수(원)	구분		시급 액수(원)
성별	남성	11,327.2	가맹 형태	가맹점	11,176.5
	여성	11,724.2		직영점	14,895.0
연령	20세 미만	11,162.5		근로 시간 구분	잘 모름
	25세 미만	12,114.4	15시간 미만		10,650.8
	30세 미만	9,860.0	36시간 미만		12,798.6
	30대	12,360.0	36시간 이상	9,906.7	
	40대 이상	9,953.3	근속	3개월 이하	11,550.0
업태	편의점	9,951.8		6개월 이하	13,193.3
	커피점	13,028.8		1년 이하	10,872.7
	햄버거점	14,790.0		2년 이하	9,906.7
	피자점	-		2년 초과	10,000.0
	제과점	-		전체	11,578.7
	기타	-			

□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해서는 68.9%가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 있었고 14.2%가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는 응답까지 합치면 26.9%였다. 교부 방식으로는 문자(모바일) 메시지가 71.6%로 가장 많았다.

- 전년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매월 또는 가끔이라도 받는 응답자 비율이 83.2%에서 올해 70.4%로 약 12.8%p가 줄어들었다.

〈표 2-11〉 임금 명세서 교부 여부 및 교부 방식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임금 명세서 교부 여부	매월 받음	599	68.9	교부 방식	서면	79	12.0
	가끔 받음	12	1.5		문자(모바일) 메시지	470	71.6
	못 받음	117	14.2		이메일	15	2.3
	잘 모름	105	12.7		기타	92	14.0
	1개월 미만	23	2.8		전체	656	100.0
전체	826	100.0					

- 세부 변수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임금명세서를 못 받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5세 미만에서 못 받는 응답자가 많았다.
- 업태별로는 편의점, 커피점, 제과점에서 못 받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이 26.6%에서 39.4%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맹 형태별로도 직영점보다 가맹점에서 임금 명세서 미수령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지난해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임금명세서 미수령 비율이 올해 그 비율이 모든 업태에서 높아져서 못받는 비율이 평균 14.2%로 지난해보다 약 10배 이상 증가했다.

〈표 2-12〉 세부 변수별 임금 명세서 수령 여부

(단위: %)

구분		매월 받음	가끔 받음	못 받음	잘 모름	1개월 미만
성별	남성	72.5	0.5	10.6	15.0	1.4
	여성	67.6	1.8	15.4	12.0	3.2
연령	20세 미만	58.2	1.8	10.9	23.6	5.5
	25세 미만	60.8	1.8	18.2	15.2	4.0
	30세 미만	77.0	0.6	8.7	11.8	1.9
	30대	74.7	1.3	12.7	8.9	2.5
	40대 이상	76.6	1.5	13.4	7.5	1.0
업태	편의점	68.5	1.5	14.9	11.7	3.5
	커피점	67.6	1.4	13.4	15.5	2.1
	햄버거점	89.6	2.1	4.2	4.2	-
	피자점	83.3	-	-	16.7	-
	제과점	60.9	-	19.6	19.6	-
	기타	60.0	2.9	14.3	20.0	2.9
가맹 형태	가맹점	68.5	1.4	14.5	12.8	2.8
	직영점	91.3	-	-	4.3	4.3
	잘 모름	62.8	2.3	16.3	16.3	2.3
근로 시간	15시간 미만	68.9	1.3	14.4	12.6	2.8
	36시간 미만	68.8	1.9	12.5	13.9	2.9
	36시간 이상	72.2	1.4	15.3	9.7	1.4
근속	3개월 이하	56.8	1.5	11.7	19.4	10.7
	6개월 이하	72.9	2.4	13.3	11.4	-
	1년 이하	70.7	0.9	19.1	8.8	0.5
	2년 이하	71.6	1.4	14.9	12.2	-
	2년 초과	80.0	1.1	8.9	10.0	-
전체		68.9	1.5	14.2	12.7	2.8

□ 편의점 브랜드별로는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가 임금 명세서를 못 받거나 잘 모른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CU와 GS25보다 상대적으로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가 해당 영역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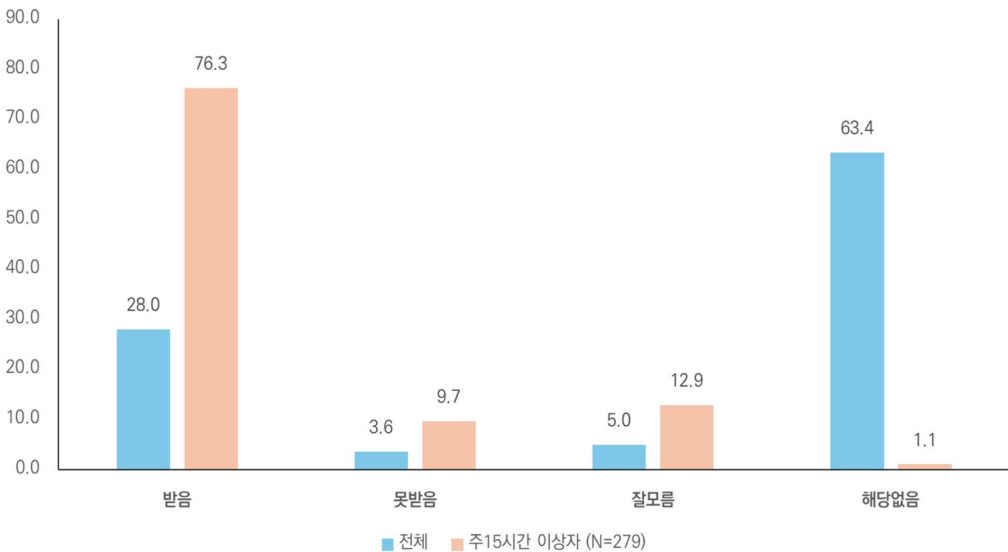
〈표 2-13〉 편의점 브랜드별 임금 명세서 교부 실태 (단위: %)

구분	매월 받음	가끔 받음	못 받음	잘 모름	1개월 미만
CU	72.6	0.5	13.2	10.8	2.8
GS25	70.6	2.3	12.4	11.0	3.7
세븐일레븐	59.1	1.1	22.6	15.1	2.2
이마트24	50.0	3.8	23.1	11.5	11.5
전체	68.5	1.5	14.9	11.7	3.5

② 주휴수당

□ 전체 조사자 중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응답자는 28.0%였으며, 못 받음(3.6%), 잘 모름(5.0%), 해당 없음(63.4%)이었다. 주 15시간 이상자(279명)를 기준으로 보면, 주휴수당을 받는 응답자가 76.3%에 달했고, 못 받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자가 각 9.7%, 12.9%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 15시간 이상자 중 받는 비율이 64.8%로 약 11.5%p가 증가했다.

〔그림 2-4〕 주휴수당 수령 실태 (단위: %)



- 주 15시간 이상자를 기준으로 세부 변수별 주휴수당 수령 현황을 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고, 나이로 보면 30대 이상에서 못 받는 비율이 높았다.
- 업태별로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주휴수당을 못 받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다. 가맹 형태에 따라서는 받는 비율은 비슷했으나, 가맹점은 '못 받음' 응답이 10.9%, 직영점은 '잘 모름' 응답이 25.0%로 다른 집단에 비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다.
 - 근속에 따라서는 3개월 이하에서 못 받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았다.
 -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주휴수당을 받는 비율이 증가했다. 다만 업태별로 보았을 때, 편의점은 받는 비율이 59.4%에서 63.9%로 약 4.5%p가 증가했고, 커피점은 90.0%에서 오히려 올해 88.5%로 1.5%p가 줄어들었다.

〈표 2-14〉 세부 변수별 주휴수당 수령 여부(주 15시간 이상자)

(단위: %)

	구분	받음	못 받음	잘 모름	해당 없음
성별	남성	77.0	9.5	10.8	2.7
	여성	76.1	9.8	13.7	0.5
연령	20세 미만	76.9	7.7	15.4	-
	25세 미만	76.8	6.3	15.8	1.1
	30세 미만	83.3	10.4	6.3	-
	30대	64.9	16.2	13.5	5.4
	40대 이상	76.7	10.5	12.8	-
업태	편의점	63.9	16.3	18.4	1.4
	커피점	88.5	3.8	5.8	1.9
	햄버거 점	97.3	-	2.7	-
	피자점	100.0	-	-	-
	제과점	73.7	-	26.3	-
	기타	94.4	5.6	-	-
가맹 형태	가맹점	76.5	10.9	11.3	1.3
	직영점	75.0	-	25.0	-
	잘 모름	76.2	4.8	19.0	-
근속	3개월 이하	69.6	10.7	17.9	1.8
	6개월 이하	84.1	4.5	9.1	2.3
	1년 이하	80.0	7.7	10.8	1.5
	2년 이하	77.6	9.0	13.4	-
	2년 초과	70.2	17.0	12.8	-
	전체	76.3	9.7	12.9	1.1

- 편의점 브랜드별로는 세븐일레븐과 CU에서 주휴수당을 받는 응답자가 각 51.9%, 59.0%로 다른 브랜드에 비해 낮았다. 다만, '못 받음'이라고 구체적인 응답을 한 비율로는 세븐일레븐이 25.9%, 이마트24가 18.2%로 높게 나타났다.
-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가 앞의 다른 응답(임금 명세서, 주휴수당 등)에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응답이 반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브랜드에 비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2-15〉 편의점 브랜드별 주휴수당 수령 여부(주 15시간 이상자) (단위: %)

구분	받음	못 받음	잘 모름	해당 없음
CU	59.0	16.4	23.0	1.6
GS25	75.0	10.4	12.5	2.1
세븐일레븐	51.9	25.9	22.2	-
이마트24	72.7	18.2	9.1	-
전체	63.9	16.3	18.4	1.4

③ 퇴직금

- 조사 대상자 중 퇴직금을 수령하는지에 대해 '받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9%였으며, 근속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51.1%였다.
- 퇴직금 지급 대상자(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중 퇴직금 수령 비율은 51.1%로 지난해 46.5%보다 높아졌으나, 못 받음(못 받거나 해당 없음) 대상자가 15.3%로 지난해보다 11.1%보다 높아졌다. 또한, 잘 모른다는 응답자가 33.6%라는 점은 실제 퇴직금 미지급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2-16〉 퇴직금 수령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근속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받음	130	15.9	67	51.1
못 받음	18	2.2	8	6.1
잘 모름	146	17.8	44	33.6
해당 없음	526	64.1	12	9.2
전체	820	100.0	131	100.0

- 퇴직금 수령 가능한 응답자를 중심으로 세부 변수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받는 비율이 약간 더 높다.
-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이 받는 비율도 높았지만, 못 받는 비율도 높았다. 다만, 해당 없다는 응답까지 포함해서 보면 여성이 못 받거나 해당 없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25세 미만에서 받지 못하거나 잘 모르거나 해당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 업태별로는 편의점에서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11.0%, 해당 없다는 응답도 13.7%로 다른 업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받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있으나, 편의점의 경우에는 지난해 받는 비율이 41.5%에서 올해 41.1%로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받지 못하거나 해당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 11.0%, 13.7%로 지난해(8.5%, 3.7%)보다 더 많아졌다. 반면, 잘 모른다는 응답은 46.3%에서 34.2%로 줄어들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응답으로 비율이 이동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2-17〉 세부 변수별 퇴직금 실태(근속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단위: %)

구분		받음	못 받음	잘 모름	해당 없음
성별	남성	54.3	8.6	31.4	5.7
	여성	50.0	5.2	34.4	10.4
연령	20세 미만	50.0	-	50.0	-
	25세 미만	43.2	2.7	37.8	16.2
	30세 미만	66.7	-	22.2	11.1
	30대	50.0	7.1	28.6	14.3
	40대 이상	51.7	10.3	34.5	3.4
업태	편의점	41.1	11.0	34.2	13.7
	커피점	60.0	-	32.0	8.0
	햄버거점	82.4	-	17.6	-
	피자점	66.7	-	33.3	-
	제과점	57.1	-	42.9	-
	기타	33.3	-	66.7	-
가맹 형태	가맹점	50.4	6.6	33.9	9.1
	직영점	33.3	-	66.7	-
	잘 모름	71.4	-	14.3	14.3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43.5	4.7	48.2	3.5
	36시간 이상	78.9	10.5	7.9	2.6
전체		51.1	6.1	33.6	9.2

(6) 인격적 대우

- 인격적 대우 관련하여 폭언·폭력 실태 중에서는 사업주, 동료에 대한 경험은 없었으나, 손님에 의한 폭언·폭력은 응답자 중 44명(5.3%)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 2.98회로 나타났다.
 - 지난해 손님에 의한 폭언·폭력이 응답자 중 6.4%, 월 평균 3.6회였던 것에 비해서 올해 조사에서는 손님에 의한 폭언·폭력이 감소하였다.

〈표 2-18〉 폭언·폭력 실태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사업주 폭언·폭력	-	-	825	100.0
동료 폭언·폭력	-	-	825	100.0
손님 폭언·폭력 (평균 손님 폭언·폭력 횟수: 2.98회)	44	5.3	781	94.7

- 세부 변수별 손님에 의한 폭언·폭력 실태를 보면, 업태별로는 제과점이 15.6%로 가장 높고, 직영점보다는 가맹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에게서 높았다.

〈표 2-19〉 세부 변수별 손님에 의한 폭언·폭력 실태 현황 (단위: %)

구분		손님 폭언, 폭력 경험	구분	손님 폭언, 폭력 경험	
성별	남성	5.8	가맹 형태	가맹점	5.1
	여성	5.2		직영점	4.3
연령	20세 미만	3.6		근로 시간 구분	잘 모름
	25세 미만	4.9	15시간 미만		3.2
	30세 미만	3.7	36시간 미만		10.6
	30대	8.9	36시간 이상	5.6	
	40대 이상	6.5	근속	3개월 이하	1.0
업태	편의점	5.5		6개월 이하	3.0
	커피점	3.5		1년 이하	5.6
	햄버거점	4.2		2년 이하	10.2
	피자점	-		2년 초과	11.1
	제과점	15.6		전체	5.3
	기타	-			

- 성희롱 실태도 마찬가지로 사업주나 동료에 의한 경험은 없었으나, 손님에 의해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9명(1.1%)이었다. 이는 지난해 4명(0.5%)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 손님에 의한 성희롱은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했으며(8명), 나이로는 20세 이상 25세 미만이 4명, 업태로는 편의점이 8명으로 나타났다.

〈표 2-20〉 성희롱 실태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사업주 성희롱	-	-	825	100.0
동료 성희롱	-	-	825	100.0
손님 성희롱	9	1.1	816	98.9

(7) 임금 지급

- 임금 지급 실태를 보면, 임금 체불 경험한 노동자는 4명(0.5%)이며, 임금 삭감을 경험한 노동자는 1명(0.1%)이었다. 반면, 마감 후 차액 처리 발생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39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절반인 49.7%였다.
- 지난해와 비교하면, 임금 체불 노동자는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고, 임금 삭감 경험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마감 후 차액 발생 경험자도 497명(61.7%)에서 399명으로 줄어들었다. 마감 후 차액 처리에 관해서도 본인 부담이 지난해 31.8%였으나 올해 22.5%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발생 경험자 중에서 본인 부담을 한 비율로 보면, 지난해 51.3%에서 올해 46.1%로 전체 비율보다는 그 감소폭이 적다.

〈표 2-21〉 임금 지급 실태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비율(%)
임금 체불	있음	4
	없음	821
임금 삭감	있음	1
	없음	824
마감 후 차액 처리	본인 부담	184
	사업주 부담	196
	반반 부담	19
	경험한 적 없음	420

- 세부 변수별 마감 후 차액 처리를 보면, 남성이 본인 부담을 한 적이 더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5세 이상 30세 미만과 40대 이상에서 본인 부담 비율이 높았다.
 - 업태별로 보면, 편의점에서 본인 부담이 31.8%로 다른 업태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직영점보다 가맹점에서 본인 부담이 높았고, 직영점은 경험 비율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 지난해와 비교하면, 마감 후 차액 처리에서 편의점이 지난해 37.0%가 본인 부담을 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31.8%로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

〈표 2-22〉 세부 변수별 마감 후 차액 처리 (단위: %)

구분		본인 부담	사업주 부담	반반 부담	경험한 적 없음
성별	남성	28.0	25.1	2.4	44.4
	여성	20.5	23.6	2.3	53.6
연령	20세 미만	5.5	29.1	-	65.5
	25세 미만	17.1	24.2	2.4	56.3
	30세 미만	26.3	21.9	1.3	50.6
	30대	20.3	24.1	-	55.7
	40대 이상	34.0	23.9	4.6	37.6
업태	편의점	31.8	23.9	3.3	41.0
	커피점	4.2	19.7	-	76.1
	햄버거점	6.4	29.8	-	63.8
	피자점	-	20.0	-	80.0
	제과점	-	34.9	2.3	62.8
	기타	2.9	20.0	-	77.1
가맹 형태	가맹점	23.5	24.4	2.3	49.8
	직영점	18.2	4.5	-	77.3
	잘 모름	7.0	23.3	4.7	65.1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25.7	22.7	1.7	49.9
	36시간 미만	13.7	25.9	3.4	57.1
	36시간 이상	23.9	28.2	4.2	43.7
근속	3개월 이하	18.4	14.6	1.5	65.5
	6개월 이하	21.7	24.7	3.6	50.0
	1년 이하	27.8	27.8	1.4	42.9
	2년 이하	23.3	27.4	1.4	47.9
	2년 초과	19.3	29.5	5.7	45.5
전체		22.5	23.9	2.3	51.3

(8) 기타 및 사회보험

□ 추가 노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13.6%였으며,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그리고 30세 미만에서 나타났다.

- 업태별로는 편의점이 9.1%로 가장 적었으며, 피자점 33.3%, 커피점 26.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맹 형태별로는 직영점보다는 가맹점에서 높았으며, 근로시간에 따라서도 근로시간이 길수록 경험이 더 많았다. 근속에 따라서도 근속이 길수록 추가 노동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추가 노동이 지난해 10.5%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높아졌으며, 편의점의 경험은 비슷했고, 제과점은 줄어들었으나, 그 외 다른 업태에서 추가 노동 경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커피점 12.7% → 26.1%, 햄버거점 10.0% → 19.1%).

〈표 2-23〉 세부 변수별 추가 노동 경험 유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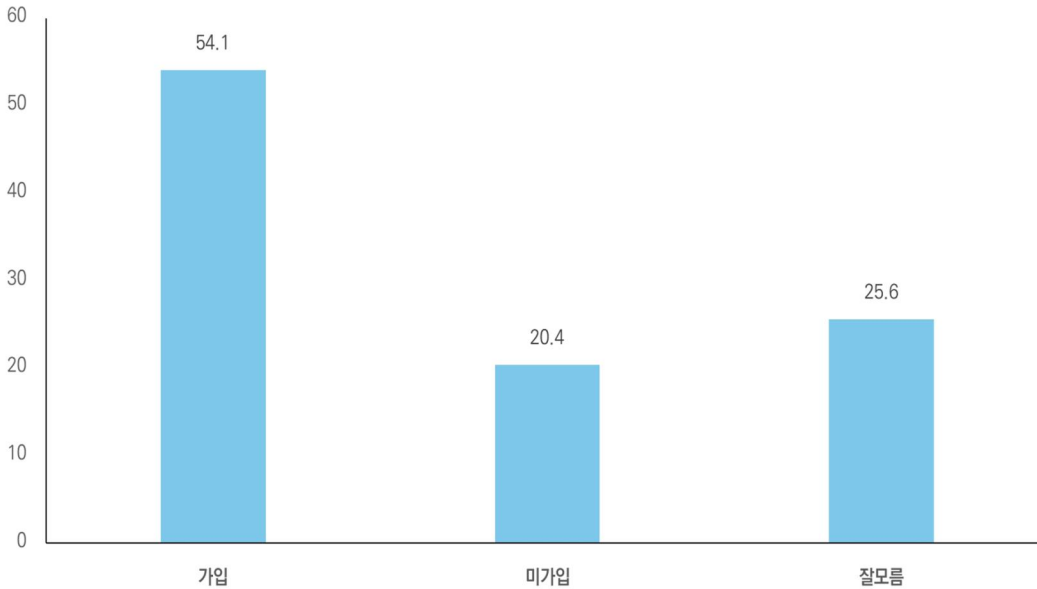
구분		있음	없음	구분		있음	없음	
성별	남성	11.2	88.8	가맹 형태	가맹점	13.5	86.5	
	여성	14.5	85.5		직영점	4.3	95.7	
연령	20세 미만	18.2	81.8		근로 시간 구분	잘 모름	20.9	79.1
	25세 미만	14.9	85.1	15시간 미만		9.1	90.9	
	30세 미만	14.9	85.1	36시간 미만		21.4	78.6	
	30대	10.3	89.7	36시간 이상	25.4	74.6		
	40대 이상	10.6	89.4	근속	3개월 이하	9.2	90.8	
업태	편의점	9.1	90.9		6개월 이하	12.0	88.0	
	커피점	26.1	73.9		1년 이하	11.2	88.8	
	햄버거점	19.1	80.9		2년 이하	19.9	80.1	
	피자점	33.3	66.7		2년 초과	22.7	77.3	
	제과점	14.0	86.0		전체			
	기타	22.9	77.1				13.6	86.4

□ 사회보험 가입을 보면, 54.1%가 가입한 것으로 밝혔고, 20.4%가 명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25.6%였다.

-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사회보험 가입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해 가입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67.0%, 미가입은 12.8%,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20.3%였지만, 올해 응답자는 가입자가 줄고 미가입은 늘어났다.

[그림 2-5] 사회보험 가입 실태

(단위: %)



－ 세부 변수별로 보면 사회보험 가입이 낮은 집단은 여성, 20세 미만, 커피점, 제과점, 가맹점, 15시간 미만 등에서 주로 미가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24> 세부 변수별 사회보험 가입 실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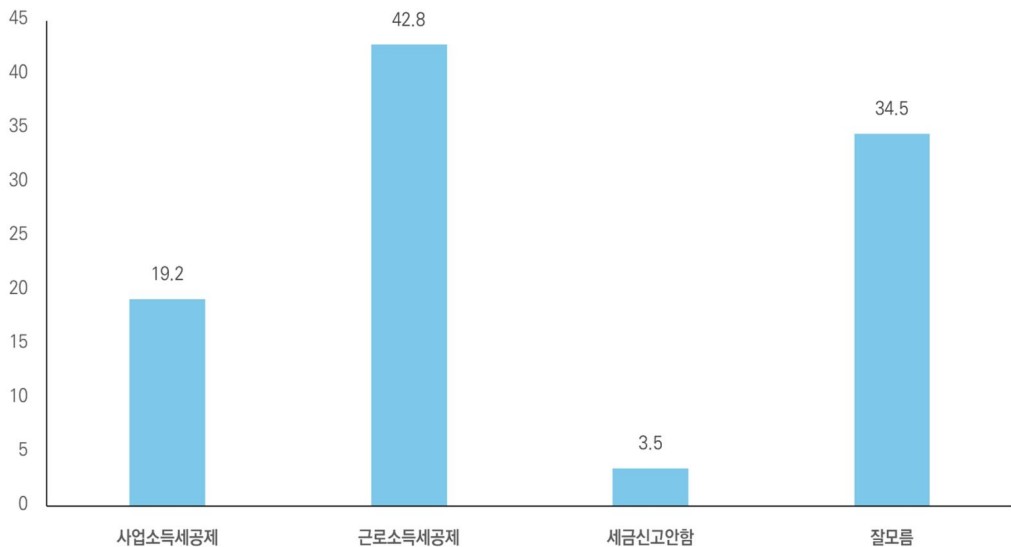
구분		가입	미가입	잘 모름	구분		가입	미가입	잘 모름
성별	남성	60.2	17.5	22.3	가맹 형태	가맹점	53.3	21.0	25.7
	여성	51.9	21.4	26.7		직영점	91.3	-	8.7
연령	20세 미만	38.2	20.0	41.8		근로 시간 구분	잘 모름	48.8	20.9
	25세 미만	46.5	21.6	31.9	15시간 미만		50.9	20.2	28.9
	30세 미만	61.7	13.0	25.3	36시간 미만		54.6	23.7	21.7
	30대	56.4	19.2	24.4	36시간 이상		77.8	12.5	9.7
	40대 이상	63.5	25.0	11.5	근속	3개월 이하	41.1	19.8	39.1
업태	편의점	59.9	16.1	24.1		6개월 이하	55.2	17.6	27.3
	커피점	36.6	30.3	33.1		1년 이하	59.5	20.9	19.5
	햄버거점	75.0	14.6	10.4		2년 이하	60.1	22.3	17.6
	피자점	83.3	-	16.7		2년 초과	58.4	22.5	19.1
	제과점	30.4	39.1	30.4		전체	54.1	20.4	25.6
	기타	31.4	34.3	34.3					

(9)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3.3 노동자' 여부)

- 4대 보험료 부담, 퇴직금 지급, 연장 및 야근수당 지급 등 노동법상 사업주 의미를 피하려고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서 등록하는 불법·탈법적인 고용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 문제이다.²⁾
- 이번 조사에서도 단시간 노동자임에도 사업자로 등록하는 관행여부를 파악했는데, 조사 참여자 중 19.2%가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개인사업자 지위로 확인되었다. 외에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5%, 잘 모른다는 응답자가 34.5%였으며, 명시적으로 본인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2.8%였다.
 - 지난해와 비교하였을 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응답이 12.2%에서 19.2%로 약 7.0%가 증가했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한다는 응답이 58.6%에서 42.8%로 약 15.8%가 감소했다. 최근 '가짜 3.3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지난해보다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개인사업자 지위로 일하는 노동자가 증가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노동법 상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6] 3.3 노동자 여부

(단위: %)



2) '가짜 3.3'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관련해서는 '권리찾기유니온' 홈페이지 참조. 세금을 3.3%만 공제하고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이점이 있지만, 향후 노동문제 발생 시 제반 노동법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https://www.unioncraft.kr/bbs/board.php?botable=plaza_pds&wr_id=538&page=2)

□ 세부 변수별로 보면 여성, 25세 미만, 커피점 등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 명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남성이 48.1%로 여성 41.0%보다 높았으며,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와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남성이 적었다.
- 지난해와 비교하더라도 편의점과 커피점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가 증가했으며, 햄버거점은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거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한다는 응답 모두 줄어들었다. 다만, 대부분에서 '잘 모름'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표 2-25〉 세부 변수별 3.3 노동자 여부

(단위: %)

구분		사업소득세 공제	근로소득세 공제	세금신고 안 함	잘 모름
성별	남성	13.1	48.1	2.9	35.9
	여성	21.1	41.0	3.7	34.1
연령	20세 미만	21.8	32.7	-	45.5
	25세 미만	22.6	33.5	4.6	39.3
	30세 미만	16.1	49.1	0.6	34.2
	30대	15.4	41.0	3.8	39.7
	40대 이상	17.0	56.0	5.0	22.0
업태	편의점	14.8	47.6	3.1	34.5
	커피점	38.7	26.8	3.5	31.0
	햄버거점	12.5	52.1	2.1	33.3
	피자점	-	50.0	-	50.0
	제과점	15.9	31.8	9.1	43.2
	기타	25.7	31.4	5.7	37.1
가맹 형태	가맹점	19.0	43.3	3.7	34.0
	직영점	13.0	39.1	-	47.8
	잘 모름	25.6	37.2	2.3	34.9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19.1	41.6	3.7	35.5
	36시간 미만	23.2	37.7	3.9	35.3
	36시간 이상	9.7	68.1	1.4	20.8
근속	3개월 이하	18.9	34.0	2.4	44.7
	6개월 이하	21.2	39.4	4.2	35.2
	1년 이하	17.7	48.4	3.3	30.7
	2년 이하	20.4	48.3	4.1	27.2
	2년 초과	18.0	46.1	4.5	31.5
전체		19.2	42.8	3.5	34.5

□ 편의점 브랜드별로 보면, 세븐일레븐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한다는 응답도 가장 적었다.

-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세븐일레븐에서 지켜야할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식의 ‘가짜 3.3 노동자’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마트24도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응답이 7.7%로 가장 낮았지만, 근로소득세를 공제한다는 명시적 응답도 38.5%로 세븐일레븐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가짜 3.3 노동자’ 비율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표 2-26〉 편의점 브랜드별 3.3 노동자 여부

(단위: %)

구분	사업소득세 공제	근로소득세 공제	세금신고 안 함	잘 모름
CU	16.6	50.7	1.9	30.8
GS25	10.1	50.9	2.8	36.2
세븐일레븐	23.7	35.5	5.4	35.5
이마트24	7.7	38.5	7.7	46.2
전체	14.8	47.6	3.1	34.5

3) 근무 만족도와 복수 일자리 여부

□ 조사 참여자의 근무 만족도를 임금과 임금 외 노동 조건으로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만족+매우 만족)이 각 75.9%, 77.7%이며, 평균 점수로는 약 3.92점, 4.02점에 가까워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에는 전반적인 근무 만족도가 86.3%(평균 4.09점)이었고, 올해는 만족도를 임금과 임금 외 노동 조건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만족도가 지난해에 비해 조금씩 줄어든 모습이다.

〈표 2-27〉 임금, 노동 조건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임금	인원(명)	10	26	163	445	182	3.9237
	비율(%)	1.2	3.1	19.7	53.9	22.0	
임금 외 노동 조건	인원(명)	6	18	160	413	228	4.0170
	비율(%)	0.7	2.2	19.4	50.1	27.6	

- 세부 변수별로 만족도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높았으며, 나이로는 20세 미만에서 그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업태로는 햄버거점, 피자점에서 다른 업태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으며, 편의점에서 오히려 그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맹 형태에 따라서는 가맹점보다 직영점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근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임금과 그 외 노동 조건에서 모두 만족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표 2-28〉 세부 변수별 임금, 노동 조건 만족도(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임금	임금 외 노동 조건	구분		임금	임금 외 노동 조건
성별	남성	4.0243	4.0439	가맹 형태	가맹점	3.9236	4.0184
	여성	3.8900	4.0081		직영점	3.7826	3.8636
연령	20세 미만	4.0182	4.2545		근로 시간 구분	잘 모름	3.9767
	25세 미만	3.9848	4.0942	15시간 미만		3.9963	4.0758
	30세 미만	3.8889	3.9317	36시간 미만		3.8317	3.9469
	30대	3.8987	3.9494	36시간 이상	3.6479	3.7887	
	40대 이상	3.8350	3.9200	근속	3개월 이하	3.8937	3.9903
업태	편의점	3.9891	4.0693		6개월 이하	3.8976	3.9940
	커피점	3.8169	4.0070		1년 이하	3.9302	4.0187
	햄버거점	3.6667	3.7872		2년 이하	3.8776	4.0000
	피자점	3.6667	3.6667		2년 초과	4.0889	4.1333
	제과점	3.8511	3.7660		전체		3.9237
	기타	3.8286	3.9429				

- 조사 참여자의 투잡(부업) 현황을 보면, 전체 응답자 중 16.6%가 별도 일을 하고 있었고 평균 2.1개 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다.
 - 세부 변수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투잡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25세 미만에서 투잡을 하고 있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 업태별로는 커피점에서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투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해와 비교해보면, 투잡을 한다는 응답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8.2% → 16.6%). 특히, 업태별로 보면 편의점(7.9% → 13.7%), 커피점(7.9% → 27.3%), 햄버거점(10.0% → 14.9%), 제과점(7.7% → 14.9%) 등과 같은데, 커피점에서 투잡을 한다는 증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29〉 세부 변수별 투잡 실태

(단위: %, 개)

구분		있음		없음
			개수	
성별	남성	13.5	2.1	86.5
	여성	17.7	2.1	82.3
연령	20세 미만	28.3	2.0	71.7
	25세 미만	20.1	2.1	79.9
	30세 미만	9.4	2.1	90.6
	30대	13.3	2.0	86.7
	40대 이상	14.8	2.1	85.2
업태	편의점	13.7	2.1	86.3
	커피점	27.3	2.2	72.7
	햄버거점	14.9	2.0	85.1
	피자점	16.7	2.0	83.3
	제과점	14.9	2.1	85.1
	기타	22.9	2.1	77.1
가맹 형태	가맹점	16.0	2.1	84.0
	직영점	13.0	2.0	87.0
	잘 모름	26.8	2.0	73.2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18.3	2.1	81.7
	36시간 미만	16.2	2.0	83.8
	36시간 이상	5.6	2.3	94.4
근속	3개월 이하	21.1	2.1	78.9
	6개월 이하	19.1	2.2	80.9
	1년 이하	11.0	2.0	89.0
	2년 이하	17.0	2.0	83.0
	2년 초과	14.8	2.2	85.2
전체		16.6	2.1	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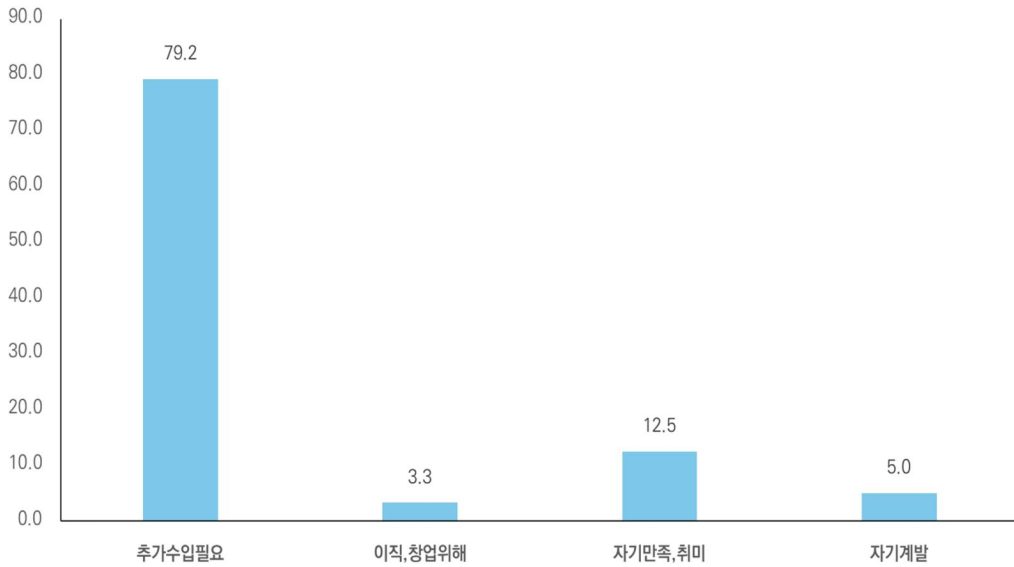
□ 투잡을 하는 이유로는 추가수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9.2%로 가장 높았고, '자기만족, 취미'가 12.5%로 다음으로 높았다.

- 단시간 노동자 특성상 노동시간이 짧다 보니 수입이 그만큼 적어서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 유사한 단시간 노동 형태를 추가로 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특히, 최근 증가하는 초단시간(주당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수입은 적고 노동시간이 짧다 보니 다른 남은 시간에 추가적인 일을 함으로써 생계 유지를 위한 추가 수입을 벌려고 한다는 점에서 투잡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추가 수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림 2-7] 투잡 하는 이유

(단위: %)



2. 프랜차이즈 사업주 실태조사

1) 조사 참여 점포 개관

□ 단시간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사용자인 프랜차이즈 점주(점주 가족 포함, 이하 동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단시간 노동자 설문과 동일하게 노동권익서포터즈가 직접 점포에 방문해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이번 조사에는 74명(개소)이 참여하였고, 지난해 조사 시 85명(개소)보다 11명이 감소하였다.
- 참여자 중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절반씩이며, 나이대로는 30대 이하와 50대가 22명(29.7%)으로 가장 많았다.
- 점포 운영 이력으로는 3년 이하가 32.9%로 가장 많았고 1년 이하가 15.1%로 가장 적었다.
- 가맹 형태는 가맹점보다 직영점 비율이 높았으며, 업태로는 편의점이 85.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점포 소유 형태로 월세(35.1%), 보증부월세(32.4%), 본사 소유(18.9%) 순으로 높았으며, 자가 혹은 전세는 각 5.4%, 4.1%로 낮았다.
-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직영점 응답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업태로는 편의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동일했으며, 월세 비율이 증가했다(25.9% → 35.1%).

〈표 2-30〉 조사 참여 점포 현황

(단위: 명/개소, %)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성	36	48.6	업태	편의점	63	85.1	
	여성	38	51.4		커피점	6	8.1	
평균 나이 [48.4세]	30대 이하	22	29.7		햄버거 전문점	1	1.4	
	40대	13	17.6		제과점	1	1.4	
	50대	22	29.7		기타	3	4.1	
	60대 이상	17	23.0		소유 형태	자가	4	5.4
평균 이력 [4.7년]	1년 이하	11	15.1			월세	26	35.1
	3년 이하	24	32.9			전세	3	4.1
	5년 이하	16	21.9			보증부 월세	24	32.4
	5년 초과	22	30.1			본사 소유	14	18.9
가맹 형태	가맹점	15	21.4	기타	3	4.1		
	직영점	50	71.4	전체	74	100.0		
	미가맹	5	7.1					

2) 가맹점 운영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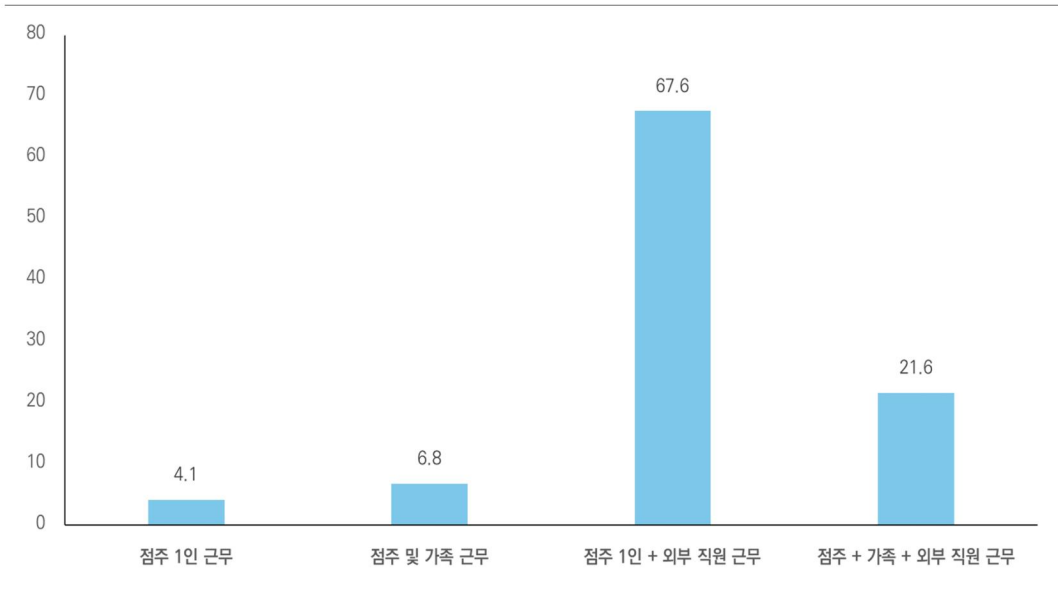
(1) 점포 근무 형태 및 직원 현황

□ 1주일을 기준으로 조사 참여 점포 운영 형태(근무 형태)를 보면, 외부 직원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점주 1인 + 외부 직원, 점주 + 가족 + 외부 직원)가 전체의 89.2%였다.

- 외부 직원으로만 운영하는 점포는 없었으며, 점주 또는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점포는 10.9%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점주와 외부 직원만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지난해 58.8%에서 67.6%로 증가하고 외부 직원에 가족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지난해 28.2%에서 21.6%로 줄어들었다.

[그림 2-8] 점포 운영형태

(단위: %)



□ 조사 참여 점포에서 근무하는 외부 직원 수는 총 260명이며, 평균 4.0명이었다.

- 업태로는 커피점에서 근무하는 평균 인원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은 평균 3.8명이었다. 점포 이력이 1년 이하인 경우 5.2명으로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변수는 조사 참여 점포 수가 1명(개소)인 햄버거점과 제과점은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지난해를 편의점만 보면, 4.2명에서 올해 3.8명으로 단시간 노동자 수가 줄어들었다.

〈표 2-31〉 세부 변수별 단시간 노동자 수

(단위: 명)

구분		노동자 수	구분		노동자 수
업태	편의점	3.8	가맹 형태	가맹점	4.2
	커피점	6.0		직영점	3.8
	햄버거 전문점	5.0		미가맹	4.8
	제과점	5.0	소유 형태	자가	3.3
	기타	3.5		월세	4.0
이력	1년 이하	5.2		전세	3.7
	3년 이하	3.7		보증부 월세	3.9
	5년 이하	4.1	본사 소유	4.2	
	5년 초과	3.9	기타	5.3	
			전체 260명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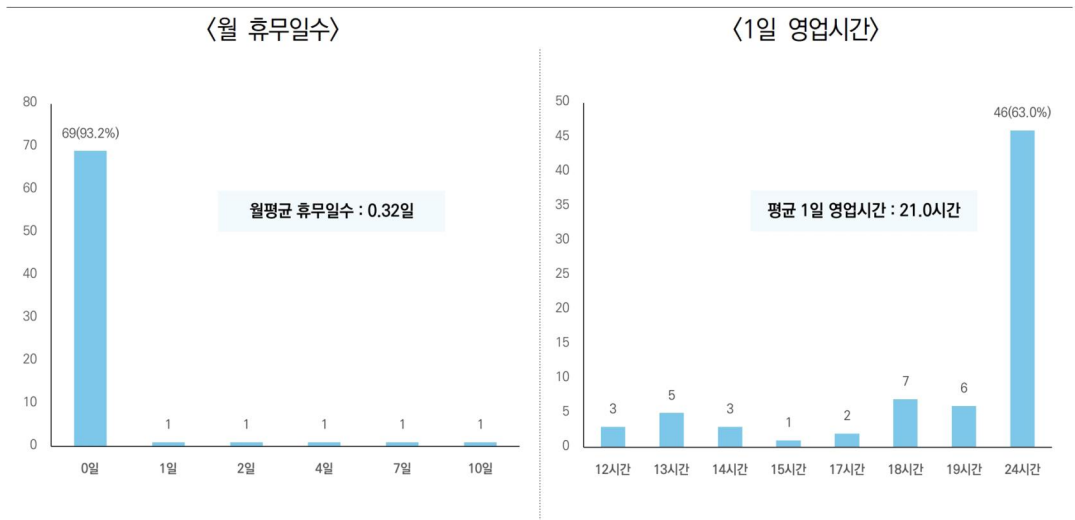
(2) 월 휴일 및 영업시간

□ 월 휴무 일수는 평균 0.32일이었고 69개 점포가 휴일 수가 0일이었다. 1일 영업시간은 평균 21.0시간이었고 24시간 운영하는 점포가 46개였다.

- 업태별 1일 영업시간을 보면, 편의점이 평균 22.3시간이고 그 외 커피점, 햄버거점, 제과점은 약 12시간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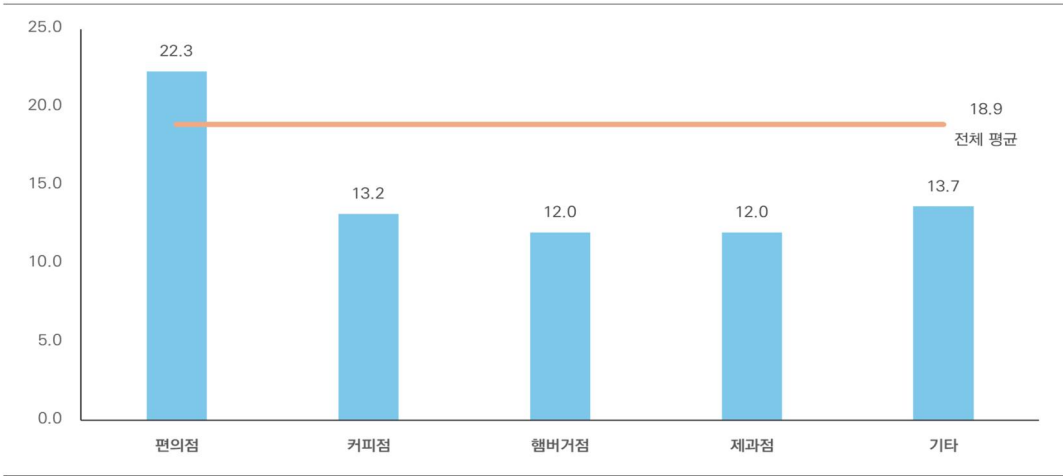
〈그림 2-9〉 월 휴무일 및 1일 영업시간 현황

(단위: 개소, %)



[그림 2-10] 업태별 1일 영업시간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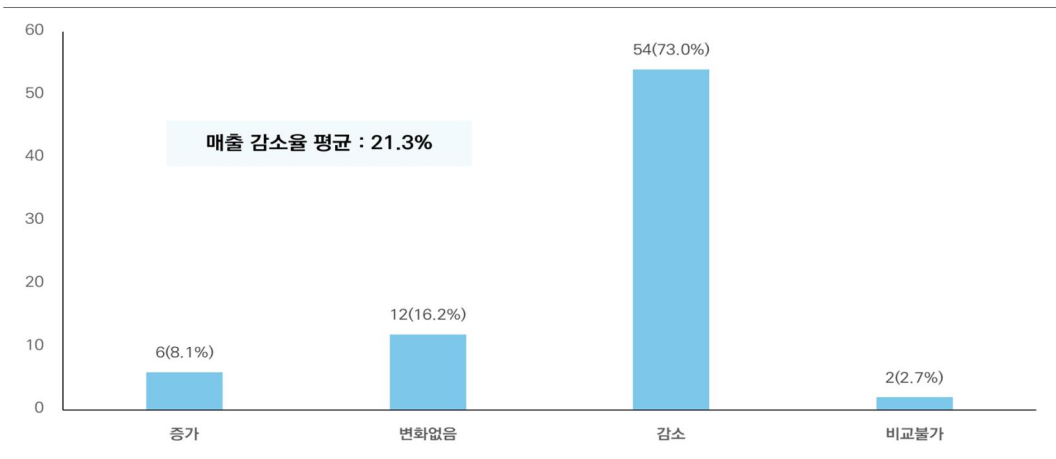
(3) 매출 현황

□ 1년 전 대비 매출 현황을 보면, 54개 점포(73.0%)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증가했다는 점포는 8.1%에 불과했으며, 변화 없다는 점포는 16.2% 정도였다.

- 조사에 참여한 점포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21.3%로 지난해 평균 감소율 20.3%보다 증가했다. 매출 감소율 외에도 전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점포 수가 지난해 45개(54.9%)에서 올해 54개(73.0%)로 증가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매출 감소는 최소 3%(1개소)에서 최대 50%(2개소)까지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편의점에서 그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 1년 전 대비 매출 현황

(단위: 개소)



- 세부 변수별로는 매출 증가했다는 업태는 커피점이 33.3%로 높으나 2개 점포여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가장 응답이 많았던 편의점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79.4%로 높게 나타났다.
 - 가맹 형태로는 가맹점이 오히려 매출이 감소한 비율이 직영점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 점포 이력에 따라서는 이력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감소했다는 점포가 80%를 넘어섰다.
 -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매출 감소했다는 비율이 더 높아졌으며, 편의점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감소했다는 점포가 57.1%에서 올해 79.4%로 약 22.3%P가 증가했다.

〈표 2-32〉 세부 변수별 매출 증감 현황

(단위: %)

구분	증가	변화 없음	감소		비교 불가	
			감소율			
업태	편의점	4.8	15.9	79.4	20.8	-
	커피점	33.3	-	33.3	25.0	33.3
	햄버거점	-	100.0	-	-	-
	제과점	-	-	100.0	30.0	-
	기타	33.3	33.3	33.3	30.0	-
가맹 형태	가맹점	6.7	26.7	66.7	16.5	-
	직영점	10.0	16.0	70.0	22.7	4.0
	잘 모름	-	-	100.0	20.4	-
사업장 소유 형태	자가	-	-	100.0	25.5	-
	월세	15.4	19.2	61.5	18.4	3.8
	전세	-	-	100.0	19.0	-
	보증부 월세	4.2	12.5	79.2	25.8	4.2
	본사 소유	7.1	28.6	64.3	18.3	-
	기타	-	-	100.0	15.0	-
이력	1년 이하	9.1	27.3	54.5	26.7	9.1
	3년 이하	16.7	16.7	66.7	20.4	-
	5년 이하	-	12.5	81.3	21.2	6.3
	5년 초과	4.5	13.6	81.8	20.7	-
전체	8.1	16.2	73.0	21.3	2.7	

- 매출 감소 대응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점포에서 '직원 근무시간 감소'와 '직원 수 감소'를 선택하고 있었다.
- 1순위로 가장 많은 대응 방법은 '직원 수 감소'로 가장 빠르게 매출 감소에 대응하면서 통제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2순위로도 '직원 수 감소'도 높았으나, '직원 근무시간 감소'를 통해 동일하게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이 높았다. 이는 작년과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다만,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정부 지원책 활용'과 같은 방법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줄어들었으며, 오히려 '직원 수 감소'와 '직원 근무시간 감소'와 같은 방법의 비율이 높아졌다.
 - 그 외 기타 대응 방법으로 나온 의견으로는 점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형태로 점주가 버티고 있다는 응답, 대응하지 않는다거나 가족이 일한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명이 있었다. 또한, PB상품을 강화하여 매출을 늘리려는 전략을 선택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표 2-33〉 매출 감소 대응

(단위: 개소, %)

구분	1순위		2순위		1순위 + 2순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매출이익 분배율 조정	2	3.7	-	-	2	2.5
본사의 간접비 지원	2	3.7	3	11.1	5	6.2
무인, 셀프서비스 확대	1	1.9	-	-	1	1.2
영업시간 조정	2	3.7	2	7.4	4	4.9
직원 수 감소	20	37.0	4	14.8	24	29.6
직원 근무시간 감소	11	20.4	17	63.0	28	34.6
정부 지원책 활용	5	9.3	1	3.7	6	7.4
제품 가격 인상	-	-	-	-	-	-
기타	11	20.4	-	-	11	13.6
전체	54	100.0	27	100.0	81	100.0

(4) 점포 운영의 어려움과 로열티

- 점포 운영상 어려움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임대료’와 ‘동종점포 과다로 인한 매출 부진’이 각 21.5%로 나타났다.
- 순위별로 보면, 1순위에서 어려운 점은 ‘동종점포 과다로 인한 매출 부진(22.2%)’ > ‘가맹수수료 부담(20.8%)’ > ‘임대료(18.1%)’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임대료(25.4%)’ > ‘동종점포 과다로 인한 매출 부진(20.6%)’ > ‘유대 시간 부족(17.5%)’ 순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순위에서는 ‘동종점포 과다로 인한 매출 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이 컸으며, 2순위는 ‘유대 시간 부족’이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유대 시간을 줄여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증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인력 관리’에 대한 어려움도 존재하나, 그보다는 ‘임대료’, ‘동종점포 과다로 인한 매출 부진’ 등과 같이 외부 구조적 통제에 의한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고 있었다.
 - 기타 어려움으로는 관리비, 배달비, 물가 등이 상승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으며, 외에도 유동 인구 감소에 따라 매출이 줄어든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2-34〉 점포 운영상의 어려움

(단위: 개소, %)

구분	1순위		2순위		1순위 + 2순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가맹수수료 부담	15	20.8	1	1.6	16	11.9
동종점포 과다로 인한 매출 부진	16	22.2	13	20.6	29	21.5
인력 관리	11	15.3	9	14.3	20	14.8
가맹본부의 마케팅 지원 부족	-	-	3	4.8	3	2.2
고객 응대	-	-	2	3.2	2	1.5
유대 시간 부족	3	4.2	11	17.5	14	10.4
계약이행 부담	3	4.2	7	11.1	10	7.4
임대료	13	18.1	16	25.4	29	21.5
기타	11	15.3	1	1.6	12	8.9
전체	72	100.0	63	100.0	135	100.0

- 월 지급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점포는 총 60개소(유효 응답 중 85.7%)였으며, 대부분이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었다.
- 로열티 수수료를 비율과 액수로 응답한 점포를 기준으로 보면, 수수료율은 최소 2%에서 최대 60%까지였으며, 평균 28.8%로 나타났다.
 - 로열티 수수료를 금액으로 밝힌 점포는 4곳으로 최소 18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평균 56.5만 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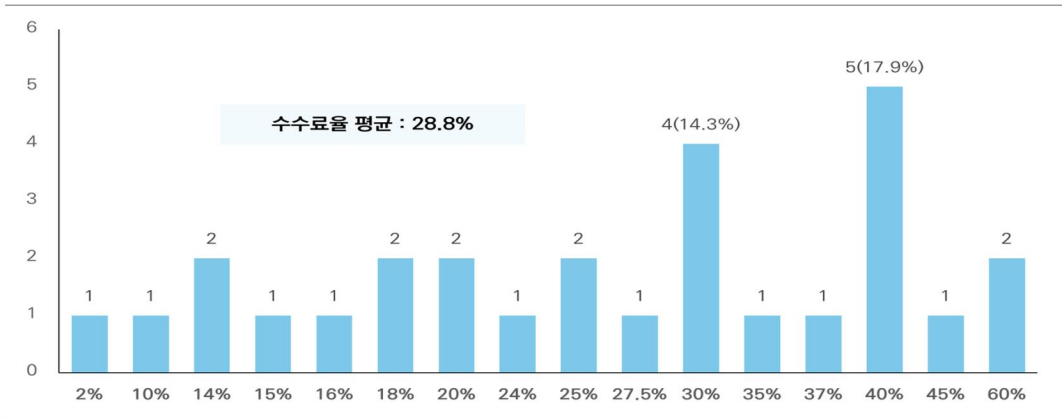
〈표 2-35〉 세부 변수별 로열티 지급 여부

(단위: 명/개소)

구분		로열티 지급	구분		로열티 지급
업태	편의점	54	가맹 형태	가맹점	12
	커피점	4		직영점	42
	햄버거 전문점	-		미가맹	4
	제과점	1	소유 형태	자가	3
	기타	1		월세	18
이력	1년 이하	9		전세	2
	3년 이하	20		보증부 월세	22
	5년 이하	13	본사 소유	11	
	5년 초과	17	기타	3	
			전체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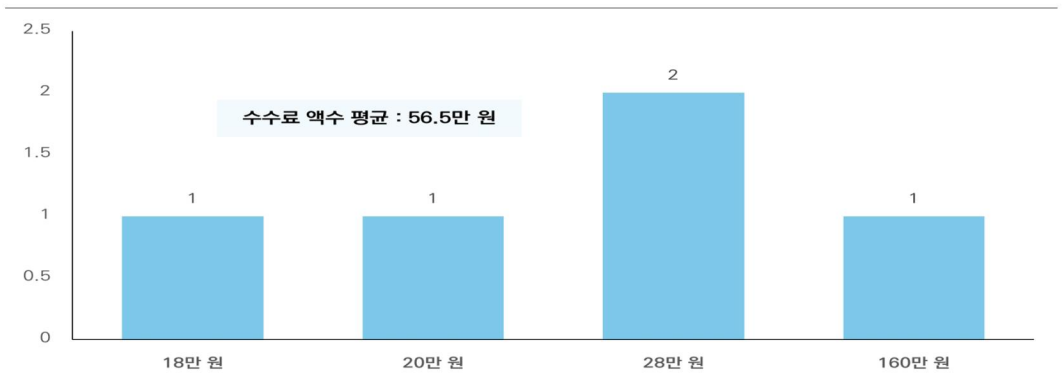
[그림 2-12] 지급 로열티 수수료율 분포(N=28)

(단위: 시간)



[그림 2-13] 지급 수수료액 분포(N=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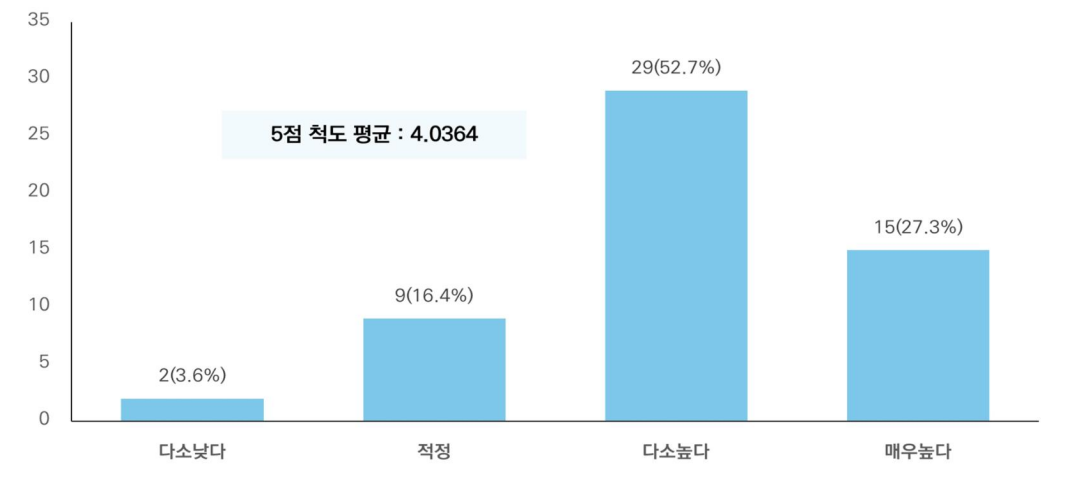
(단위: 시간)



- 로열티 수준에 대한 인식을 보면, 높다고 생각하는 점포가 44개(80.0%)였으며, 5점 척도로 평균을 내며 평균 4.04점으로 로열티가 높다고 보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 지난해 기준으로 높다고 보는 응답자가 64.8%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약 15.2%가 증가했고, 5점 척도도 3.87점에서 4.04점으로 올라서 로열티에 대해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 로열티 수준을 바라보는 인식

(단위: 시간)



- 세부적으로 보면, 편의점에서 로열티가 높다고 생각하는 인식 수준이 높았으며, 3년 이상 5년 이하인 점포와 1년 이하 이력인 점포에서 높았다. 가맹 형태에 따라서는 직영점보다 가맹점에서 로열티가 높다는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표 2-36〉 세부 변수별 로열티 수준 인식(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5점 척도 평균	구분		5점 척도 평균
업태	편의점	4.1000	가맹 형태	가맹점	4.3333
	커피점	3.6667		직영점	3.9412
	햄버거 전문점	4.0000		미가맹	3.3333
	기타	2.0000			
이력	1년 이하	4.2222	소유 형태	자가	4.0500
	3년 이하	4.0000		월세	4.2222
	5년 이하	4.2308		전세	4.3333
	5년 초과	3.8000		보증부 월세	4.3333
				본사 소유	3.9250
			기타	4.2500	
			전체	4.0364	

(5) 가맹점 본사 및 경기도에 대한 요청 사항

□ 가맹본부에 대한 요청 사항을 1순위, 2순위로 파악했는데, 가장 높게 나온 응답은 ‘가맹비/로열티 인하(23.1%)’였으며, 그다음은 ‘근접 출점 제한(11.5%)’ 순이었다.

- 순위별로 보면, 1순위에서는 ‘가맹비/로열티 인하(35.8%)’ > ‘카드 수수료 인하(13.4%)’ > ‘1일 영업시간 제한(10.4%)’ 순이었다. 2순위로는 ‘근접 출점 제한(17.5%)’ > ‘의무 휴일제 도입(14.3%)’ > ‘카드 수수료 인하(12.7%)’ 순이었다.
- 지난해와 비교해 보더라도 ‘가맹비/로열티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제한’과 같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에 대한 요청이 주요하게 높았다.
- 이는 앞의 어려움에 대한 점과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매출 감소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가맹본부가 일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함께 유대 시간 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37〉 가맹본부에 대한 요청 사항

(단위: 개소, %)

구분	1순위		2순위		1순위 + 2순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노무 상담/교육	-	-	-	-	-	-
세무 상담/교육	1	1.5	-	-	1	0.8
가맹비/로열티 인하	24	35.8	6	9.5	30	23.1
카드 수수료 인하	9	13.4	8	12.7	17	13.1
최저 수익제 도입	3	4.5	4	6.3	7	5.4
근접 출점 제한	4	6.0	11	17.5	15	11.5
의무 휴일제 도입	3	4.5	9	14.3	12	9.2
1일 영업시간 제한	7	10.4	4	6.3	11	8.5
대체 근무 지원	1	1.5	3	4.8	4	3.1
직원소개/알선	1	1.5	4	6.3	5	3.8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2	3.0	4	6.3	6	4.6
간접비 지원 확대	6	9.0	1	1.6	7	5.4
휴폐업 시 전업 지원	3	4.5	4	6.3	7	5.4
건보 등 사회보험료 지원	1	1.5	2	3.2	3	2.3
점주 협의회 간 정례협의 제도화	-	-	1	1.6	1	0.8
지역화폐 확대	1	1.5	1	1.6	2	1.5
기타	1	1.5	1	1.6	2	1.5
전체	67	100.0	63	100.0	130	100.0

□ 가맹본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대한 요청 사항도 물어보았다. 경기도에 대한 요청 사항으로 가장 높은 응답은 ‘건보 등 사회보험료 지원(16.0%)’과 ‘지역화폐 확대(13.6%)’, ‘카드 수수료 인하(13.6%)’ 등이다.

- 순위별로 보면, 1순위는 ‘건보 등 사회보험료 지원(22.9%)’ > ‘지역화폐 확대(15.7%)’ > ‘카드 수수료 인하(14.3%)’ 순이었다. 2순위는 ‘휴폐업 시 전업 지원(16.4%)’ = ‘근접 출점 제한(16.4%)’ > ‘카드 수수료 인하(12.7%)’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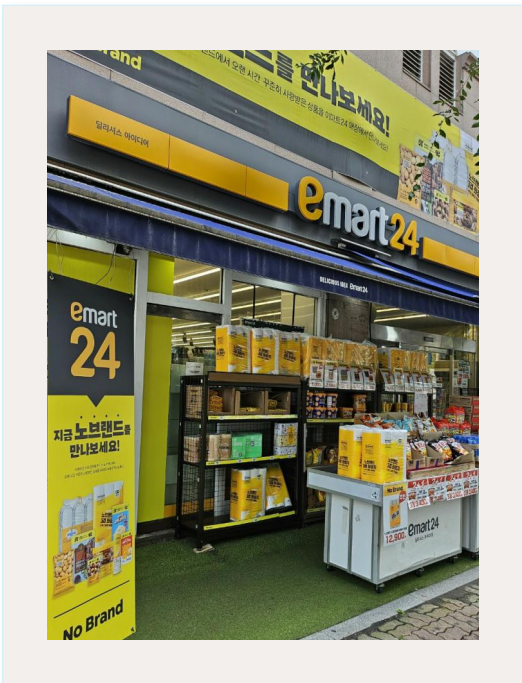
- 지난해와 비교해 보더라도 ‘카드 수수료 인하’나 ‘지역화폐 확대’, ‘휴폐업 시 전업 지원’ 등이 동일하게 높았으며, 올해는 ‘건보 등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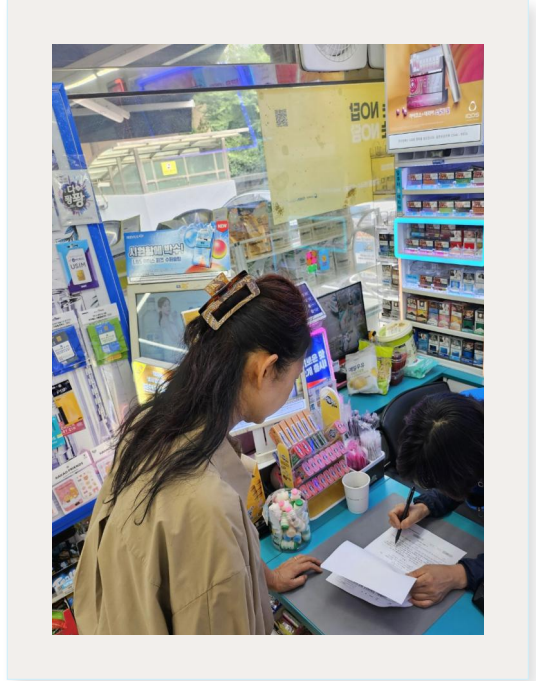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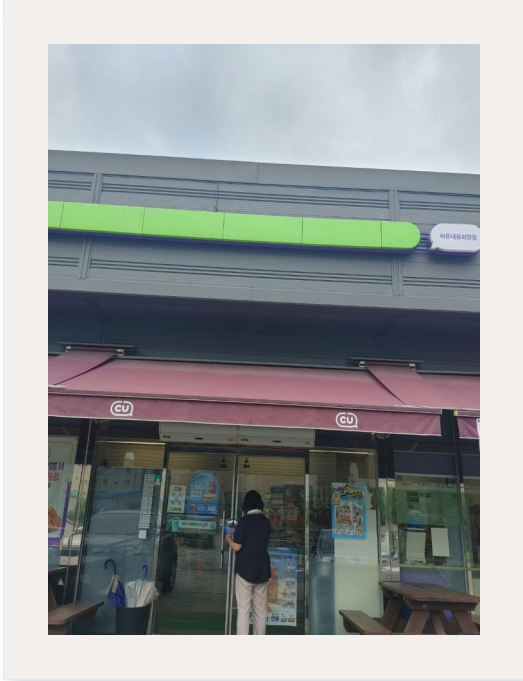
〈표 2-38〉 경기도에 대한 요청 사항

(단위: 개소, %)

구분	1순위		2순위		1순위 + 2순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노무 상담/교육	2	2.9	-	-	2	1.6
세무 상담/교육	-	-	2	3.6	2	1.6
가맹비/로열티 인하	1	1.4	1	1.8	2	1.6
카드 수수료 인하	10	14.3	7	12.7	17	13.6
최저 수익제 도입	2	2.9	3	5.5	5	4.0
근접 출점 제한	5	7.1	9	16.4	14	11.2
의무 휴일제 도입	3	4.3	4	7.3	7	5.6
1일 영업시간 제한	6	8.6	2	3.6	8	6.4
대체 근무 지원	2	2.9	-	-	2	1.6
직원소개/알선	-	-	1	1.8	1	0.8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2	2.9	-	-	2	1.6
간접비 지원 확대	1	1.4	1	1.8	2	1.6
휴폐업 시 전업 지원	6	8.6	9	16.4	15	12.0
건보 등 사회보험료 지원	16	22.9	4	7.3	20	16.0
점주 협의회 간 정례협의 제도화	1	1.4	4	7.3	5	4.0
지역화폐 확대	11	15.7	6	10.9	17	13.6
기타	2	2.9	2	3.6	4	3.2
전체	70	100.0	55	100.0	125	100.0

□ 실태 조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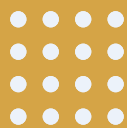








03



요약 및 정책 제언

- 1. 요약
- 2. 정책 제언

03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 단시간 노동자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실태가 조사 참여자의 94.7%가 작성했고, 91.7%가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브랜드별로는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가 상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 비율이 높았다(세븐일레븐: 5.4%, 8.0%, 이마트24: 8.0%, 8.0%).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하는 비율이 약간 줄어들었다.
- 주당 근무일 수는 평균 2.9일, 주당 근로 시간은 18.2시간, 1일 근무시간은 평균 6.4시간으로 나타났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280명, 34.1%였다. 이중 주휴수당 관련하여 응답한 인원은 279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76.3%가 받고 있었고, 9.7%가 못 받고 12.9%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고 1.1%가 해당 없다고 했다. 지난해 못 받거나 해당 없다는 응답이 21.9%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10.8%로 줄어들었다. 다만, 잘 모른다는 응답이 12.9%인데, 잘 모른다는 응답은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 또는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모르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문제로 볼 수 있다.
- 임금 명세서 수령과 관련해서도 못 받는다는 응답자가 117명(14.2%)이었다. 지난해 조사에서 10명(1.3%)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다시금 이번 조사에서는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대폭 상승했다.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하다 보니 앞서 본 것과 같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잘 모른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 주간 기준 평균 시급액은 9,921.4원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자는 2명이었고, 전체의 0.2% 정도였다.

- 인격적 대우와 관련해서 폭언·폭력이나 성희롱은 손님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손님에 의한 폭언·폭력 경험자는 44명(5.3%)이고, 성희롱은 9명(1.1%)이다. 폭언·폭력은 제과점에 다니는 노동자의 경험이 많았으며, 성희롱 피해 경험자는 편의점과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 한편으로 올해에도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를 통해 ‘가짜 3.3 노동자’를 확인했는데, 지난해보다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응답자가 12.2%에서 19.2%로 약 7.0%p가 증가했다. 최근 노동법상 책임 회피와 비용 절감하는 형태의 ‘가짜 3.3 노동자’가 이번 조사에서도 발견되었다.
 - 편의점 브랜드별로 보았을 때,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가 CU나 GS25보다 노동 조건 등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 명세서를 지급 받지 못하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기본적인 노동 조건 영역이 최저임금 위반은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2023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개선된 부분보다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특히, 임금명세서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약 10배 이상 미수령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편의점과 커피점, 제과점 등에서 주로 높게 나타났다.
- 이와 같은 결과는 여전히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주요 사업 대상으로써 최소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지키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편의점은 주휴수당을 63.9%가 받고 있었고, CU와 세븐일레븐에서는 각 59.0%, 51.9%만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명시적으로 응답하기도 했다. 특히, 세븐일레븐은 25.9%가 받지 못하고 있었다.
- 지난해와 특징적으로 다른 점은 투잡(부업)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투잡을 한다는 응답이 8.2%에서 올해 16.6%로 10명 중 1~2명이 투잡을 하고 있을 정도로 투잡 비율이 높아졌다. 투잡의 이유도 추가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인 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도 했다.

- 프랜차이즈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대부분이 편의점이 다수였고, 편의점을 기준으로 보면 매출 감소가 지난해보다 더 심하게 나타났다. 매출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직원 수를 줄이거나 직원 근무시간을 줄여서 인건비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점포 운영상 어려움은 직원 인건비와 같은 인력 관리부분 보다도 임대료나 동종점포 과다로 인한 매출 부진, 가맹수수료 부담 등과 같이 본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에서의 비용이 나가거나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의 어려움이 컸다.
- 가맹본부와 경기도에 대한 요청 사항을 파악한 결과로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비/로열티 인하’와 ‘근접 출점 제한’과 같이 비용을 줄일 수 있거나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의 요청 사항에 높은 동의가 있었다. 경기도에 대해서는 ‘건보 등 사회보험료 지원’과 ‘카드 수수료 인하’, ‘지역화폐 확대’ 등과 같이 비용 지원이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요청 사항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

2. 정책 제언

- 먼저,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의 지속·확대를 통한 모니터링과 실사가 필요하다.
 - 이번 조사의 주요 대상자인 단시간 노동자는 작은 프랜차이즈에서 소수가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집단적 이해 대변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이들을 대신해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초기 외부 지원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
 - 노동권익서포터즈는 현장 조사를 통해 단시간 노동자의 실태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이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 대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정 부분(프랜차이즈)에 국한하여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노동권익서포터즈 인원을 늘려서 프랜차이즈를 넘어서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흩어져서 일하고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 서포터즈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사업 내용도 단시간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프랜차이즈 점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조사 과정에서 일부 프랜차이즈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통제를 받는 1인 자영업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프랜차이즈 점주까지 확대하여 노동인권 교육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구체적으로는 가맹본부와 협의를 통해 ▲편의점 개설·계약 갱신 시 일정 기간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노동법제 변화를 공지하도록 하며,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안심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예: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심 사업장을 늘릴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안심 사업장을 통해 지역에서 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여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차원에서 단시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노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러 지역에 설립되어있는 지역 노동센터는 지역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상담·지원 사업, 교육사업, 정책개발, 복지, 지원, 홍보, 네트워크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지역 내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한 것과 같이 단시간 노동자는 여러 취약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수입을 늘리기 위해 투잡을 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 내 단시간 노동자가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점포 등에서 일하면서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역 내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기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이는 곧 지역 사회의 노동·일자리 정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지역 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 이미 지역 노동센터가 설립된 곳은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미조직·취약 노동자의 이해 대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조직·취약 노동자는 초기에 개별적으로 이해 대변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는 외부 지원을 통해 이들을 위한 이해대변을 해나갈 필요가 있고, 지역 노동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 특히, 작년 조사부터 시작한 위장 개인사업자 실태(가짜 3.3 노동자)를 보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노동자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점주가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할 개연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점주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관행을 계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노동센터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또한, 경기도 내 기초단체의 지역 노동센터에 대한 지원과 함께 광역 단위의 노동센터는 도 내 지역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서 지원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를 취합하여 광역 단위에서 정책을 생산하고 지원하면서 기초 단위에서는 이를 집행하고 제도를 계도하는 방향으로 시너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 점주에 대한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 점주가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프랜차이즈 점주는 본사의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매출 감소에 대한 대응에서도 직원을 줄이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직원을 줄여서 생기는 공백에 대해서는 점주들이 그 자리를 채우거나 가족이 채우고 있다는 부분도 있다. 게다가 이미 김철식(2014)은 편의점 점주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성’이 뚜렷한 자영업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 프랜차이즈 점주는 본사의 과도한 가맹비나 로열티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통제할 수 없고 높아지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는 물가도 마찬가지이다. 물가가 높아져서 재료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결국 매출이 감소할 때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기에 인건비를 조정하는 인원을 줄이거나 시간을 줄이거나 하는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프랜차이즈 점주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사에게 가맹비를 낮추라고 강제할 수 없기에, 임대료를 낮추라고 강제할 수 없기에, 다른 식으로 점주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프랜차이즈 점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그 현황과 함께 본사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프랜차이즈 점주의 고충 처리를 위한 상담이나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프랜차이즈 점주에 대한 실태는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권익서포터즈를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주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참여율은 노동자에 비해 저조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를 활용하여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에 프랜차이즈 사업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점주를 대상으로 고충 처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한다거나 불공정 거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경기도가 함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업계 관행으로 여겨지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그 과정들에서 계속해서 사회에 그 문제를 알림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 관행도 함께 알리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를 받는 점주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형성할 것이다.

□ 프랜차이즈 점주와의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

- 프랜차이즈 점주와 함께 단시간 노동자가 참여하는 소통 창구 또는 협의회 형태를 구성하여 지역 사회에서 점주와 노동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시간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일하기보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일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지역 사회 구성원이 예비 고객(소비자)이기에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매출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점주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사회적으로 불공정 거래, 운영 상 어려움을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시간 노동자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서로 고충을 듣고 이해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통해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 점주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공지, 교육 등의 내용을 ‘전달’하지만, 점주들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점주들의 목소리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 점주의 이야기는 곧 단시간 노동자가 일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을 만들어 가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주에 대한 이해대변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나아가 점주와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협의회 등 구성이 필요하다.



고양시노동권익센터
Goyang City Labor Rights Center